Life of Youth



청년생활

12

1963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은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다

강선 제강소 인발 강판 직장 건설 공사에 동원된 강선 지구 산업 건설 트레스트 로동 청년들은 기계 설비 조립을 다그치고 있다.
↓





↑
평양—신의주간 철도 전기화를 위한 차련관~남시간 선로 보강 작업에 떨쳐나선 청년 건설자들.

황주군 룡천 협동 농장 민청원들은 년내로 450여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기위해 모두가 일떠 섰다.
↓





↑
하성 광산 서부갱 박로 착암 채봉현 작업반원들은 중단 봉피식 발파 법을 도입하여 발파 효률을 높임으로써 채광에서 새로운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12
(171)
1963

차 례

표지 1 면,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로력적 성과로!》
박 상락 그림

1956년 12월!

12월이 왔다.

우리는 해마다 이 달이 오면 한 해 동안의 로정을 감명 깊게 더듬어 보며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눈앞에 그리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군 한다.

그런데 올 해의 12 월이 우리들에게 류달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

누구든지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먼 과거가 아닌 7 년 전을 눈앞에 그려 보라! 전후 3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첫 5 개년 계획의 문턱을 넘으려던 그 때 나라 사정은 얼마나 곤난하였던가! 우리에게는 아직 축성된 토대도 빈약하였고 경험도, 기술도, 자금도 부족하였다. 남쪽에서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반공》 소동을 일으키면서 《북진》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당 내에서는 반당 종파 분자들이 당을 정면으로 공격해 나섰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머리를 저었고 소극 분자들은 뒤'걸음을 쳤다. 외국의 일부 동지들도 우리의 방침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5 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하면서 벼라별 시비를 다 하였다.

바로 이처럼 어려움이 두겹 세겹으로 가로 놓여 있던 시기에 열린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는 우리 인민 앞에 명확한 투쟁 목표와 방도를 제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다. 당은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고조를 일으키며 그것으로써 혁명의 원쑤들을 짓부시며 그것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일으켜 세울 것을 힘 있게 호소하였다.

당은 인민을 굳게 믿었으며 인민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궐기하였다.

당의 사상,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파악한 강선의 로동자들은 말했다. 《수상님! 나라 형편이 그러하온데 우리 무엇인들 못 해 내겠습니까!》

협동 농장원들도 말했다. 《당과 수상님이 계시온데 우리 못 넘을 산이 없고 우리 못 건늘 강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의 진군은 이렇게 개시되였다. 그 해에 강선의 용해공들은 6만 톤의 설비에서 12만 톤을 뽑았다. 김철의 용해공들은 선철 19만 톤에도 질겁을 하던 사람들의 고집을 밀어 제끼고 27만 톤을 생산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22% 장성도 어렵다고 하던 그 해 계획은 44%로 초과 완수되였다.

폭포로 쏟아지는 붉은 쇠'물, 물'결처럼 흘러 나오는 천이며 기계, 일용품들의 사태에 대내외 원쑤들의 공제는 박살이 났다. 그 어떤 힘도 인민들의 전진 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부름에 충직하였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 나갔다. 그들은 아득령을 넘어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달리였고 평남 청년 탄전, 해주—하성으로 달리였다.

바로 이런 기세로 우리는 남들이 《환상》이라고 하던 첫 5 개년의 준령도 불과 2 년 반 동안에 질풍 같이 넘었고 1 년이 수십 년을 맞잡는 속도로 7 개년 계획의 첫 3 년의 언덕을 힘 있게 넘어 오늘의 지점에 당도하였다.

우리들이 줄달음쳐 온 지난 7 년 간의 전투적 행로는 영광과 승리로 가득차 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의 승리이며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의 승리이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체험을 통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인도하는 길에는 항상 승리가 약속되여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당은 오늘 우리를 새 전투에로 뜨겁게 부르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튼튼히 다지면서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휘황한 설계도인가!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를 두 어깨에 걸머지고 나아갈 우리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당이 부르는 길에 뛰여 들며 당이 펼쳐든 설계도를 실현하는 일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는 7 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유리한 조건에서 이 력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적 원쑤들은 오늘도 우리의 위업을 해치려하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어떤 자들은 자력 갱생의 기치 높이 번영의 한 길로 내달리는 우리를 비방하고 공격하며 방해하고 있다. 1956년 그 때 《반공》 소동을 일으키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오늘은 《평화》의 가면 밑에 침략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그 때 우리의 할 일을 《환상》이라 시비하던 자들이 오늘은 우리가 해 놓은 일을 《민족 리기주의》니, 《고립화의 길》이니 하고 중상해 나서고 있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여! 신들매를 더욱 튼튼히 조이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천리마 대진군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그리하여 혁명의 원쑤들을 족치면서 당에 의하여 교양되였으며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나가는 조선 청년들의 본때를 다시 한 번 시위하자!

우리는 이 엄숙한 시기에 보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며 배워야 한다.

생활은 부유하고 흥겹게, 정신은 항일 투사들의 정신으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며 싸울 것이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가며 백 번, 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강의한 의지와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날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아 5 개년 계획을 2 년 반에 빛나게 완수한 것처럼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넘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보다 새롭고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자!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혁명에 대한 책임감

박 영 순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책상을 마주한 나의 머리에는 지난날 백두 밀림에서 싸우던 당시의 일이 선하게 떠오른다.

당시 우리 앞에는 조국 땅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나라를 해방해야 할 반제 민족 해방 혁명의 간고한 임무가 제기되고 있었다.

왜놈들에게 짓밟히고 신음하는 조국 땅과 인민을 두고 우리는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조선의 운명은 다름 아닌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며 조선 혁명은 반드시 우리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높은 자각과 의무감이 항시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였다.

혁명에 대한 책임감—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조국과 인민의 운명, 자기 계급의 처지에 대한 깊은 리해와 자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명백히 깨달음으로써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에 무한히 충실할 수 있으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손 원금이란 혁명 전우가 있었다. 그는 1930 년대 초기부터 당 조직의 지도 하에 벌써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청년 공산주의자로서 혁명의 길에 나섰다. 나는 도창 무기(칼과 창 같은 무기)를 제작하던 초시기부터 그와 함께 일하였다. 구리'빛 얼굴에 정채 어린 눈'동자를 가진 그는 퍽그나 노래와 웃음을 즐기는 명랑한 청년이였다. 그와 함께 일하면 조금도 힘든 줄 몰랐다.

………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 하리
우리는 다만 제 손으로
해방을 가져 오리라…

그가 이렇게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부를 때면 우리의 팔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힘'발이 솟구쳐 두세 곱석 쇠를 마스고 벼리여 내군 하였다. 그는 지하 공작원과 통신원들에게 무장을 공급하는 불철주야의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렇게도 락천적이고 고난 앞에 굴할 줄 모르던 그에게 거의 절망적인 불행이 들씌워졌다. 적구에 남아서 지하 조직들에서 쓸 작탄을 만들고 있던 중 그는 어느 날 불시에 신관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만 눈을 부상 당하였다. 원금 동무의 정채 어린 눈'동자에서는 마지막 광명이 사라져 갔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열렬한 혁명가인 그는 결코 락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는 동무들에게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쇠를 다루는 사람이 왜 이러우, 나는 죽지 않았소. 혁명 투쟁인데 크나 작으나 불행과 희생이 없을 수 있소.》

공산주의자인 그에게는 이런 때 개인의 불행으로하여 결코 락망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어랑촌 유격 근거지로 들어 온 그는 자기가 평소부터 사랑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새로운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는 바이올린을 들고 근거지 인민들과 아동단원들, 병기창 동무들과 환자들을 찾아 다녔고 그들에게 열렬한 선전 사업을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유격 근거지를 해산하게 되였을 때 나는 부득불 실명 때문에 유격대를 따라 다니며 싸울 수 없게 된 원금 동무와 헤여지지 않으면 안 되였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고향인 금곡촌으로 갈 것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예 놈들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가라구, 소경이 된 몸으로 어떻게 투쟁하겠소.》

《박 동무의 심정은 알만 하오. 그러나 혁명가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출 수 없지 않소…》

그러면서 그는 적구에서 지하 선전이 정녕 곤난하다면 공개 선전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는 실로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서라면 자신의 희생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렬한 혁명 청년이였다.

그 후 그는 금곡촌과 부근 마을에서 정력적인 혁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바이올린 소리와 쟁쟁한 목소리는 적구의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궐기시켰다. 인민들은 그를 적들의 마수에서 6 개월 간이나 숨겨 나갔으나 그는 체포되고 말았다.

모진 고문은 계속되였다. 그래도 아무런 소득을 못 본 원쑤들은 그를 사형하는 수 밖에 없었다. 놈들은 그의 집에 마른 나무를 쌓고 그 우에 결박 당한 원금 동무를 올려 놓은 후 무참히 총질을 하고 불을 달아 놓았다.

불'길은 황황히 타올랐으나 그는 조금도 자기의 혁명적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그 불'길 속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힘 있게 웨치며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

청년 동무들!

손 원금 동무는 어찌하여 그 때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최후 순간까지 그렇듯 견결하게 싸울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자기 조국의 운명과 혁명에 대한 책임감이 그의 가슴을 항시 불태웠기 때문이였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영웅 조군실은 자기의 사랑하는 중기를 선혈로 붉게 물들이면서 조국의 고지를 피로써 사수하였다. 그 때 만약 조 군실 영웅에게 자기가 지키고 있는 한 개의 전호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 그리고 세계 혁명과 한 줄로 련결되여 있다는 높은 자각이 없었다면 어찌 그가 그렇듯 용감할 수 있었겠는가?

때문에 나는 항상 우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깊이 리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시대적 임무를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땅 우에 인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남조선 2천만 동포들을 하루 속히 해방시킬 조국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며 지구 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고 세계 혁명을 끝까지 완수할 책임이 있다. 바로 자기들이 흘린 고귀한 피로써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의 행복과 락원을 안겨 준 우리의 혁명 선렬들과 선배들이 이 혁명 위업을 우리에게 물려 주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숭고한 혁명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끝까지 혁명을 수행할 각오를 굳게 다져야 한다.

청년들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의 창조적인 로동으로 조국을 부강하게 하며 사회주의를 더욱 빠르게,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오직 우리의 붉은 주먹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에 대한 책임감—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의 자그마한 재봉기 바늘에도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량심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은 거울처럼 반영되는 법이다.

우리는 한 개의 일용 필수품을 만들어도 더 좋게 만들어야 하며 한 알의 쌀, 한 그람의 석탄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혁명 선렬들과 앞날의 후대들에게 자기 시대의 혁명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했다고 아무런 량심의 가책도 없이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자기의 혁명 임무를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을 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이다.》라고 가르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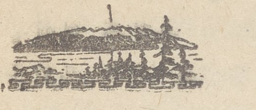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모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며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환하게 모르고서는 조선의 혁명을 할 수 없다. 과학 기술을 모르고서야 어찌 기술 혁명 시대의 당당한 청년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모든 부문에서 지식이 공기처럼 필요한 시대이며 모르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시대이다. 청년들은 고도의 혁명적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다그쳐야 한다.

청춘이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 오지 못 하는 법이며 후회란 언제나 때 늦은 법이다. 청년들은 귀중한 청춘의 나날을 한 순간도 헛되이 함이 없이 혁명 시대의 청년들답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청년 동무들!

나의 이 간곡한 부탁이 당신들의 생활과 수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는 더 없는 기쁨으로 될 것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

홍 경 봉

당은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수 있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불굴의 혁명 투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다.**

당적 사상 체계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며 당 중앙 위원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립장과 사상 관점이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 혁명의 총 참모부인 우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의 전투력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당의 전투력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철옹성 같이 보위하며 당에 무한히 충실하는 것이다. 력사적 경험은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의지로 통일 단결되였을 때 산을 가르고 바다를 막으며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위대한 힘을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 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서는 전 당과 전체 인민이 한 사람 같이 당 중앙 위원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실은 당원들과

함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에 무한히 충실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 의식으로 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혁명의 전투적 참모부이다. 당은 로동 계급의 조직들 중에서 최고 형태의 조직으로서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령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당의 령도 하에서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게 되며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가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로동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싸우려면 우선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인 당에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혁명을 끝까지 하자는가 안 하자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선봉대이며 조선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하고 그 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장 혁명적인 당이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들은 해방 후 짧은 기간 내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념원하여 오던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실로 당의 령도는 우리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담보이며 우리의 훌륭한 미래도 오직 당의 령도 하에서만 꽃필 수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도, 조국의 륭성 발전도, 인민의 자유 행복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모든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에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이나 비당원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로동당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조선 인민의 지도적 력량입니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곧 혁명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을 견결히 보위하며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만세는 안 불러도 사업을 잘 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일체 부정적 현상들 및 온갖 계급적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

그것은 또한 언제나 당의 로선,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지지 옹호하고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피를 흘릴지언정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는 데서 표현된다.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튼튼히 무장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심오하게 연구 체득하고 그를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리해할 때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를 깊이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 당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 당인가를 알게 된다. 또한 혁명 전통을 깊이 연구 파악함으로써만이 과거 우리의 혁명 선렬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충실하였는가를 알게 되며 그들처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다.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끔 하며 그것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는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 정책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승리의 앞길을 밝혀 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들이 당의 결정 지시들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을 깊이 학습함으로써 그 기본 사상과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나 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꼭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당 정책에 대하여 걸서 대하거나 시비 비방하는 경향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 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그것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 어떤 주관적인 욕망이나 각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활동 즉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객관적 사업 성과에 의하

여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그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오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 및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보낸 민청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히 발휘되여야 한다.

계급 의식을 높이는 것은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에 충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왜냐 하면 당의 사상은 곧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관점을 소유하며 계급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고 그와의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기회주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반맑스주의적 사상 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배우고 또 배워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며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는 열성 하나만으로써 건설할 수 없다. 나라의 혁명은 날로 심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은 더 방대해지는 형편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과학적 지식으로 자체를 무장함이 없이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당에 충실하려고 하는 일'군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 한 자리에서 답보할 때에는 혁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 앞에는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우선 자기 맡은 사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정통하며 학습 열의를 부단히 높이며 모두가 항상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기술 혁명 수행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에 충직한 일'군이 된다는 것은 맹세나 결심으로써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자체 수양과 학습과 실지 투쟁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자체의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고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고 선진 과학 기술을 소유한다면 그 만큼 자기 앞에 부과된 당'적 과업을 더 잘 실행할 수 있으며 그 만큼 당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세충천한 대지의 청춘들



문덕군 신리 역에서 내린 나는 립석 협동 농장으로 뻗은 큰 길로 걸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어디선가 탈곡기 돌아 가는 소리가 스르릉 스르릉 들려 오고 뜨락또르들이 가없이 넓은 벌에서 마지막 추경을 다그치고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는 5색 기'발이 바람에 나붓기는 것이 보이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가물가물 보였다. 아마도 그 곳에서는 논풀이가 한창인 모양이였다.

온 대지는 참으로 새로운 비약을 위하여 들끓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붕하고 경적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새 화물 자동차 한 대가 한낮의 해'빛을 받아 눈부신 빛살을 뿌리면서 달려 오고 있었다.

《립석으로 가시거던 올라 타시오!》

운전실에는 솜동복을 입은 환갑 고개의 로인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나는 로인의 곁에 앉으면서 길'동무를 만난 것을 내심으로 기뻐하였다. 나는 넌지시 로인에게 말을 걸었다.

《농사에서 1 등을 하고 근위 기'발을 타셔서 정말 반갑겠습니다.》

《허…어디 그 뿐일 줄 아시오. 이 차도 다 수상님이 선물 보내 준 자동차웨다. 내가 입은 이 솜동복서껀… 옛날에야 어디 아무리 정이 두터워두 제 자식들에게 누더기나 변변히 입혔수! 그런데 우리 수상님은 하루'새 우리 군 3만 5천 명 농장원을 다 이렇게 뜨뜻하게 입혀 놨수다.》

로인은 감격으로 하여 눈을 슴벅거린다. 그는 가을갈이를 하여 파도 치는듯한 무연한 벌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나두 이 벌에서 늙어 온 사람이지만 옛날엔 정말 몹쓸 놈의 땅이였쉐다. 겨우 모를 내구두 벼'모들이 새'노랗게 말라 드는 걸 보문 그저 병든 자식을 보는 것만 같아서 속이 왈칵 뒤집혀지군 했쉐다. 내 마득하면 글쎄 한 여름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판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까지 했겠수! 허허》

로인은 성냥을 득 그어 권연 한 대를 붙여 물었다.

《그러던 땅에 지금은 해마다 만풍년이 실리구 있수다. 금년에도 우리 립석 협동 농장에서만도 정당 5.5 톤 이상을 냈는데 우리 집에서도 200 가마니 이상이나 분배 받게 됐지요, 정말 옛날 천석군 부럽지 않쉐다.

이게 다 땅이 이 척박하던 땅에 물을 보내 주고 숱한 기계들을 보내 준 덕이웨다. 참 좋은 세월이지, 숱한 로동자, 사무원들이 한창 바쁜 봄, 가을에 와서는 일을 제껴 주구…군에

서 기사들이 뻔질나게 내려 오구…지금은 온 나라가 달라붙어 농사를 짓고 있수다. 온 나라가 말이웨다.》

갑자기 로인은 운전수를 돌아 보며 말했다.

《어허, 벌써 1 작업반에 왔군, 이 사람 차를 좀 세우게!》

《왜요?》

젊은 운전수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해 한다.

《글쎄 세우라는 데두 내 이 손님에게 잠간 보여 드릴 게 있네.》

이윽고 차는 멎었다. 로인은 나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아담한 한 채의 건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저 집이우다. 우리 1 작업반 선전실이지요, 수상님은 바로 저 집에서 우리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소탈하게 농사 법을 의논했쉐다. 정전 후에만도 여섯 차례나 우리 마을에 오셨지요, 정말루…》

로인은 불현듯 목이 꽉 메이는듯 하려던 말을 더 잇지 못 했다. 그의 주름진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어려 있었다. 참말이지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당과 수상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므로 하여 우리 나라는 온 세상에서도 뛰여 나게 농사가 잘 되고 세세 년년 만풍년이 드는 것이다. 나는 이 한없는 행복과 긍지를 온 천하를 향하여 자랑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관리 위원회에 이르렀다. 나는 여기에서 방금 포전에서 돌아 오는 리 민청 위원장 김 순덕 동무를 만났다.

사무실에 들어 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의 허두를 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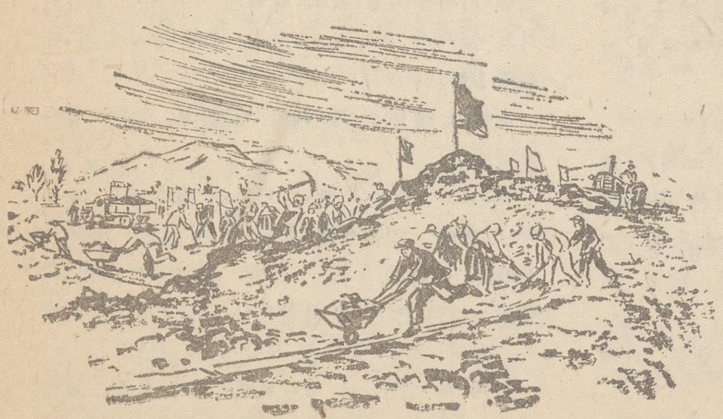
《기자 동무! 금년에 청년들이 어떻게 일했느냐구요. 정말이지 자랑이 아니라 금년 농사를 잘 지은 데는 적지 않게 우리 청년들의 힘이 깃들어 있습지요.》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농장 내 청년들은 벌써 지난 해 초겨울부터 얼음을 까고 감탕을 파서 객토 작업을 하였다. 그들은 정당 20 톤 씩의 질 좋은 자급 비료도 논밭에 듬뿍듬뿍 깔아 주었다. 1 년 농사는 봄철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청년들은 봄철에 벌써 풍요한 가을 벌을 내다 보면서 면밀한 영농 기구들도 준비해 놓았다.

그들은 모판 관리를 맡아 기술적으로 튼튼히 키워 냈으며 여름철 비배 관리에서 근 450 명의 기술 학습반원들이 앞장에 섰다.

지난 여름은 류달리 긴 장마가 계속되였고 풍수해가 심했다. 이 때에도 청년들은 풍수해 방지를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섰다.



《어느 날 밤 일이였지요,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 쳤습니다. 다 자란 벼가 하루 밤 새 쓰러질 위험이 생겼지요. 나는 한 달음에 벌로 내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청년 포전 초소원들이 벌써 달려 나와 제가끔 자기 맡은 포전에 붙어 서서 새끼줄로 벼포기들을 동이고 있었습니다. 번개'불이 연달아 번쩍거리고 우뢰가 우르릉거리지요. 그래도 청년들은 담아 붓는 비'줄기를 맞아 가며 누구 하나 자기의 포전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번쩍하는 번개 불'빛에 비치인 한 처녀의 얼굴에는 눈물인지 비'물인지 분간 못 할 것이 마구 흘러 내리더군요. 〈이 벼가 한 대라도 상하면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니겠어요.〉하고 그 처녀는 부르짖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쓰러질듯 하면서도 그냥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새벽에야 끝나고 벼는 완전히 도복에서 방지되였지요. 기자 동무! 우리 청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 그들이 일하는 곳에 가 보시지 않으렵니까?》

얼마 후 민청 위원장과 나는 마을 길에 나섰다.

어느덧 초겨울의 짧은 해는 서편 쪽 무연한 지평선으로 저물어 가고 있었다. 감'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의 눈부신 빛을 받아 벌이며 문화 주택의 지붕들이 도금을 한듯 번쩍거렸다.

우리가 가고 있는 개답 공사장 쪽에서 뜨락또르의 발동 소리며 벅적 끓고 있는 청년들의 웃'음소리며 노래 소리가 흘러 왔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곳에 도착하였다.

숱한 청년들이 발을 허물어 논을 풀고 있었다. 뜨락또르들이 가로 세로 달리며 파 제낀 흙을 따치까에다 담아 밀며 달리는 청년들, 세 사람씩 짝을 무어 삽질하는 총각 처녀들,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달리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어느새 옷을 갈아 입고 나왔는지 아까 자동차에 함께 온 로인도 섞여 있었다. 로인은 나를 보고 알은 체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원 젊은이들은 도시 당해 낼 수 없군, 저… 손님 명년에 다시 한번 이 고장에 오슈, 더 본때 있게 농사를 지어 놓지오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생활이 안겨 준 랑만과 기쁨이 파도치고 있었다.

그들은 벌써 당의 붉은 편지와 경남도 당 전원 회의에서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벼 정당 500 키로 증수 운동에 힘차게 일어 나 명년도 영농 준비를 다그치면서 삼천포에도 벌써 50 정보의 논을 풀었고 33 정보의 밭도 이렇게 논으로 푸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매일 책임량을 150%~200% 이상씩 넘쳐 한다고 하였다.

곳곳에 이런 구호들이 붙어 있었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자!》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게 하자!》

뜨락또르의 발동 소리며 젊은이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온 공간을 꽉 채우는듯 하였다. 모든 청년들의 몸과 일 동작에서 싱싱한 힘이 풍기고 있었다.

나는 약동하는 대지의 한복판에 서서 저녁 노을이 곱게 물든 서켠 하늘을 바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그 노을 속에 공산주의의 휘황한 래일의 화폭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안겨 왔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 가는듯 하였다.

본사 기자 한 희만

청년생활 소사전

산토닌을 대신하는 밀'짚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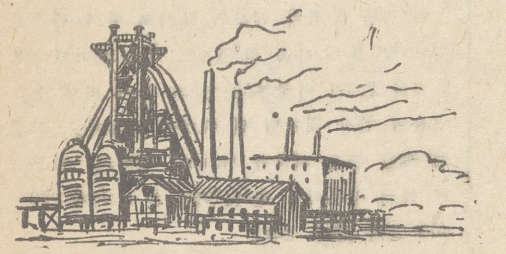
사람들은 회충 구제 약으로써 흔히 산토닌을 사용한다.

그러나 밀'짚을 달인 물도 훌륭한 회충 구제 약으로 된다.

밀'짚을 5 센치 메터의 길이로 썰어 깨끗한 물로 잘 씻은 다음 밀'짚 1 키로 그람에 물 5 리터(1:5의 비률로)를 넣고 3~4 시간 정도 (물이 간장 빛처럼 될 때까지)끓인다. 이렇게 끓인 물을 깨끗한 천으로 받아서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하면 된다.(성인은 1 회에 250~300 밀리 리터 정도)

산토닌은 사용 방법에 따라 효과도 각이하며 때로는 심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밀'짚을 리용하는 이 방법은 어디서나 손쉽게 그리고 언제든지 대중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이 회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

청년들은 여기서도 새 위훈을 떨치리라



불굴의 기개

식어 가는 전기로 앞에 모여 앉은 성진 제강소 공무부 주물 직장 《불사조 돌격대》 원들의 얼굴은 긴장되여 있었다. 지쳐 노그라진듯 맥을 빼고 서 있는 전기로는 보기에도 가슴 아플 지경이였다.

묵묵히 앉아 있는 그들 앞에 한 청년이 나섰다. 작업모를 틀어 쥔 손을 격동적으로 흔들며 부르짖는다. 그는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김 중길 동무였다.

《동무들, 그만한 실패로 해서 신심을 잃지 맙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로에서 쇠'물을 뽑아 500 톤 프레스의 호레므를 부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백 번 쓰러져도 천 번 일어나 끝까지 싸워 이긴 항일 투사들의 피가 고동치는 조선 청년의 기개를 다시 한 번 보여 줍시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가?

…얼마 전 이 곳 공무부 내 청년들은 새로운 천리마의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킨 붉은 편지를 토의하였다. 이미 이룩된 중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다양하고 쓸모 있는 철제 일용품을 더 많이 만들 데 대한 당의 호소는 강철 전사들인 그들의 심장을 높뛰게 하였다. 그들은 로력도 설비도 따로 더 보충 받지 않고 각종 기계만 해도 240여 대가 넘는 생활 필수품 공장의 설비를 만들어 보내기로 하였다.

이 많은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500 톤 프레스와 같이 능률 높은 기계가 있어야 하였다. 500 톤 프레스만 만든다면 지금 하는 생산을 헐하게 하고 그에서 많은 로력을 얻어 내여 생활 필수품 공장 설비를 만드는 데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생활 필수품 공장 설비를 만드는 데도 이 프레스가 있어야만 하였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 온 이 곳 청년들은 민청 5 차 대회에 드리는 로력적 선물로써 이 500 톤 프레스를 만들자고 결의해 나섰다. 그런 만큼 그들의 기세는 높았다. 벌써 그 날 저녁으로 달라붙은 그들은 단 하루 동안에 157 매나 되는 설계를 그려 내였다.

청년들의 일'손에서는 불꽃이 튀였다. 그런데 주물을 담당한 《불사조 돌격대》 원들은 큰 장애에 부딪쳤다. 그들이 주물해야 할 500 톤 프레스의 호레므는 무게가 4.7 톤이나 되였다. 그러니 4.7 톤의 쇠'물을 단번에 녹여 부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에는 겨우 1.5 톤 능력의 전기로가 하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자거니 못 한다거니 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 때 누구는 합금철 직장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서 주물해 오자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면 남의 생산에 지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물 시설이 없는 그 곳 직장로 앞에 날라다 새로 형틀을 만들고 주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계획된 날'자에 프레스를 만들지 못한다. 주물이 다른 공정에 앞서야 하는 만큼 《불사조 돌격대》원들에게는 하루가 바빴다.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돌격대원들 속에서는 공칭 능력 1.5 톤 로에서 4.7 톤의 쇠'물을 뽑아 내자는 대담한 생각이 나오게 되였다.

3 배나 넘는 무게에도 로가 안전하게 버티고 있도록 보조 받치개가 세워졌다.

그러나 대담한 시도도 기대와는 어긋났다.

쇠'물은 종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뽑아 내였으나 4.7 톤을 채우지 못 해 결국 부어 낸 호레므는 병신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중길 동무의 말은 청년들의 가슴에 다시 불을 달아 놓았다.

(언제 우리가 이만한 일에 물러 선 적이 있는가!)

청년들은 붉은 편지의 구절을 다시 외우며 용기 백배, 기세도 새롭게 달라붙었다.

실패한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그들에게서는 수다한 의견이 나왔다. 로를 중간 보수하자는 것, 분광을 도입하고 예비 산화로써 용해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한다면 앞서 경험으로 보아 능히 4.7 톤의 쇠'물을 뽑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

우선 로를 중간 보수하게 되였다.

로벽은 아직 사람이 달려 들기에는 너무나 열이 높았다. 그렇다고 로가 식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물에 적신 가마니에서는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증기가 풍겨 나왔다. 그 속으로 누군가 달려 들어 간다. 김 중길 동무였다.

《안 되오. 내가 들어 가겠소.》

민청 분조장 김 철봉 동무가 그 앞에 막아 나선다.

《비키라구. 우리는 결사전을 하고 있소.》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그들은 연방 육박해 들어 가 로벽을 뜯어 낸다.

중간 보수가 끝나자 드디여 돌격 대장의 구령이 내렸다.

《정 유수 동무는 산화기를, 로 병기 동무는 환원기와 출구를, 강 동선 동무는 주입구를… 모두 위치 앞으로!》

전기로는 다시 백광을 휘뿌리며 윙윙거렸고 불사조마냥 로를 지켜 선 돌격대원들의 심장은 그보다 더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끝내 4.7 톤의 쇠'물을 뽑아 내고야 말았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지금 보수 직장 한복판에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500 톤 프레스에는 《민청 5 차 대회에 드림》이라고 새긴 글'발이 《불사조 돌격대》원들의 이름과 함께 빛나고 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당이 펼쳐 준 휘황한 설계도가 젊은 가슴을 끓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가만히 있겠는가!》

공무부 사무 민청원들도 이렇게 결의하여 나섰다.

그들이 자체의 설계와 자체의 로력으로 만들어 낸 3 대의 선부 로루기(일용품의 형을 찍어 내는 기계)에는 바로 당의 부름이라면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치는 이 곳 민청원들의 불 같은 충성이 깃들어 있다.

사무 민청 단체에서 선부 로루기를 만들기로 한 때였다. 이 때부터 김 창용 동무를 그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낮에는 만날 수가 없었다.

금방 반제품 창고 곁에서 본 것 같은데 또 조금 후에는 그가 파철'더미에서 무슨 쇠'덩이를 끌어 내느라 끙끙거리는 것을 보게 되며 그런가 하면 또 보수 직장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두드리고 있다.

그래도 아침이면 공작 직장 공정원인 그한테서 언제나 틀림 없이 공정표를 받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밤이였다. 이 곳 세포 위원장 아바이는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 가려고 직장을 나

섰다. 그런데 저쪽으로 부리나케 창용이가 달려 가고 있지 않는가!

《창용이, 자네 무엇하러 또 오나?》

아바이가 이렇게 묻자

《네 아바이 무얼 좀 놓고 왔어요…》

창용이는 달려 가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빨리 다녀 나오게!》

그의 등 뒤에 한 마디 던지고 몇 발'자국 걷던 아바이는 창용이가 인차 돌아서 나오려니 하고 서서 기다렸다.

(처음 직장에 왔을 때는 정말 코흘리개던 것이 제법 기수까지 되고 지금은 또 공장 대학생까지 되였지. 끌끌한 청년이 되였거던… 그런데 무얼 두고 갔었길래 이 밤'중에 그 먼 데를 돌아서 왔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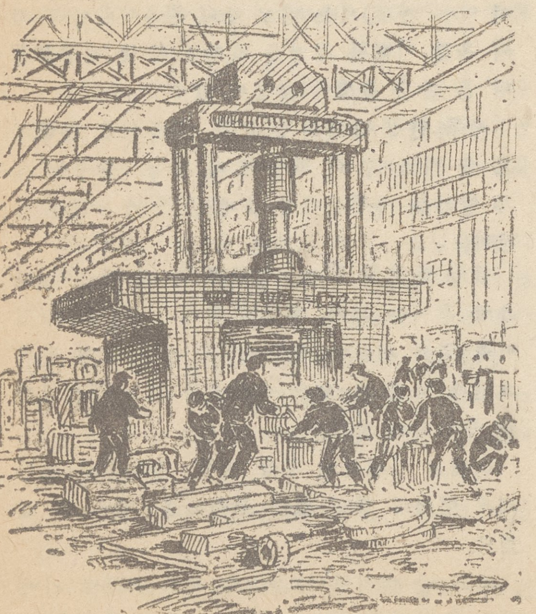
아바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아무리 기다렸으나 창용이는 돌아 오지 않았다. 하도 이상하여 직장으로 되돌아 간 아바이는 문턱에 못 박힌듯 서고 말았다.

잠잠한 직장(공작 직장은 주근과 전야근 2 교대만 일하였다.)저쪽 기대 앞에서 창용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있지 않는가. 기중기 운전공도 퇴근한 뒤여서 그는 무거운 소재를 혼자 들어서 기대에 물리노라고 애쓰고 있었다.

《이 사람, 왜 진작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바이는 창용이를 거들어 주며 말했다.

《낮에야 어디 쉬는 기대가 있나요!》



《원 사람두…》

알고 보니 창용이는 남 모르는 사이에 밤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낮에는 주물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공만 하면 선부 로투기를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얻으러 다니고 저녁에 공장 대학에서 공부가 끝나면 공작 직장으로 향하군 하였었다. 그리고는 그 날 얻은 소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공정표까지 세워 놓군 하였다.

아바이와 창용이는 소재를 다 깎고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 갔다.

창용이는 이렇게 하여 300여 개의 선부 로투기 부분품을 만들어 내였고 카프링을 비롯하여 48 전이나 되는 대형품을 주물하지 않고 파고철과 유휴 자재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 청년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다.

휴가를 고스란히 생활 필수품 공장 설비 제작에 바친 돌격대원 김 인봉, 최 순자, 전 공자 동무들이며, 진단서를 집어 던지고 전투장에 뛰여 나온 김 치수 동무, 생활 필수품 공장이 돌아 가는 날 하겠다고 혼례 날'자까지 연기하고 달려 든 김 금자 동무들의 이야기는 이 곳 사람들 속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 곳 청년들은 이렇게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킨 당의 부름 따라 살며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의 안일이나 《행복》이 아니라 집단과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 그리고 계급적 형제들의 행복한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오늘보다 래일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며 그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500 톤 프레스를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 공장에 보낼 160 톤 프레스 6 대, 40 톤 프레스 4 대, 연십기 2 대, 선부 로투기 3 대, 불반 8 대까지 모두 합해 240여 대의 설비를 만들었다.

오늘 이 곳에는 어머니 공장—성진 제강소와 나란이 1천여 평방 메터의 생활 필수품 공장이 일떠섰다.

오늘 여기서는 1 년 동안에만도 우리 인민의 살림을 윤택하고 문화적으로 장식할 고급 숟가락을 북반부 인구 두 명에 하나씩 차례지게 만들게 되며, 10만 개의 남비, 시계 태엽, 시계'줄, 50만 개의 소농기구, 의료 기구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본사 기자 한 현 준

(시)

피 끓는 청춘의 이름으로!

박 호 범

매운 바람 인다고 청춘의 가슴이 식으랴!
밤을 새웠다고 눈'빛이 흐리랴!
노래 높이 웃음 높이 바'줄 흐느적이며
청춘들은 전주를 오른다, 대공을 난다.

생각노니, 우리 언제 한 번 안일을 바란 적
  있었던가.
우리는 시련을 뚫고 나가는 젊은 수리들—
성스런 로동 속에 계급의 주먹 억세여지고
혁신의 불'길로 난관을 박차며 달려 왔거니.

곱아 드는 손을 쪼이는 불'길이 더운 것이냐
불'길에 달군 돌을 안겨 주는 반장의 심장이
  더 뜨겁더라.
찬물에 얼어 든 몸을 덥히는 아래'목이 더운
  것이냐
가슴 헤치고 안아 주는 당 위원장의 심장이
  더 뜨겁더라.

아, 우리 위훈으로 빛나는 발'자국을 따라
새 생활이 꽃피는 철'길과 철'길은 열렸고,
우리 심장으로 밀어 놓은 산'발을 따라
기적 높은 해주—하성도 뻗었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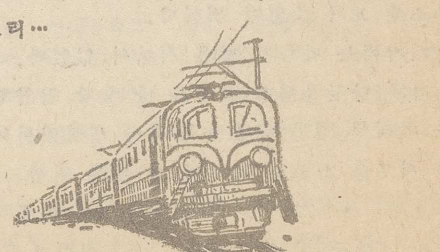
수도의 하늘에 맹세의 기적 남기고 온 우리
당의 구상이 활짝 펴 여기 새로운 전선,
젊어서 좋구나, 팔과 다리에 힘이 솟구치고
휘황해 좋구나, 노래 높은 평양—신의주—

파도 출렁이는 조국의 기슭 굽이굽이에
구름이 밤 밑을 감도는 산맥마다에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날개이며 속도인
전기 기관차 고동 높이 달리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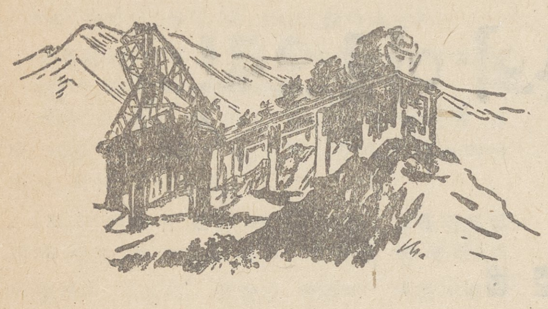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싣고 달릴 이
  길이
원쑤를 짓이기며 억세게 달릴 이 강철의 궤
  도가
우리 청춘들의 두 어깨에 걸머지웠거니
우리 한 번도 맹세를 어긴 적 있었으랴!

전주를 세우며 구리'빛 줄을 늘이는 길에
앞을 막는 강은 뛰여 넘고 산'발은 날아 넘
  으며,
우리 날으리라, 청춘의 정열로
우리 날으리라, 폭풍을 뚫고!

이 길은 자력 갱생의 강철의 궤도!
이 길은 높뛰는 우리 청춘들의 피'줄!
이 길로 우리 조국 통일을 앞당겨 오며
이 길로 우리 공산주의 언덕을 패속으로 넘
  으리…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젊은 탄부들



—안주 탄광 청년 탄부들에 대한 이야기—

두 경쟁자들

방금 작업을 인계 받은 후였다. 제 8 갱의 강 명현 민청 돌격 초소원들은 삽날에서 불이 번쩍나게 첸 롬베아에 탄을 담아 싣고 있었다. 이 때 누군가가 초소장인 강 명현 동무의 어깨를 철썩 두드렸다. 흘끔 쳐다보니 방금 자기들과 일을 교대하고 나가던 강 참모 돌격 초소장이 아닌가! 게다가 그의 뒤에는 5 명의 그의 초소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쭈르니 서서 입을 벌죽거리며 웃고 있지 않는가?

《어찌된 일이야. 동무넨 이자 방금 우리와 교대하지 않았나?》

《물론 그랬지. 그렇다고 우린 우리 초소보다 뒤떨어진 동무들을 그냥 두어 두고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네. 하하》

강 참모 동무의 대답.

이리하여 이 날 강 참모 민청 돌격 초소원들은 교대 후 한 시간이나 작업장에 남아서 자기들보다 뒤떨어진 강 명현 동무네 민청 돌격 초소를 도와 주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 붉은 편지에 접한 청년들은 석탄 생산에서의 보다 새로운 고조를 위하여 세 개의 민청 돌격 초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돌격 초소 간에는 치렬한 경쟁이 체결되였다. 모두가 종전까지의 교대 본위주의를 극복하고 작업을 면밀히 조직하면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그런데 10월 중에는 강 참모 초소가 단연코 앞장서서 경쟁 총화에서 1 등을 하였던 것이다.

《11월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강 참모 동무네를 따라 앞서자!》

강 명현 돌격 초소원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달려 들었으나 일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강 참모 초소원들이 교대를 마치고 그들을 한 시간 이상이나 도와 주게 된 것이다.

…강 참모 초소원들이 자기들을 도와 주고 나간 후 강 명현 초소원들은 쉴참에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명현이는 자기의 협낭에서 신문 한 장을 꺼내였다. 거기에는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고하는 호소문이 실려 있었다.

《동무들! 벌써 여러 번 읽어 본 것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단 말이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의 힘과 재능으로 무진장한 지하의 보물을 더 많이 캐내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돌리라…>

우리들은 인민 경제 첫 공정의 전초병들이요. 우리들이 석탄을 많이 캐야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고 인민 생활도 향상시킬 게 아니요. 우리가 땅 밑에서 캐내는 석탄산이 높아 갈수록 그 만큼 지상에서 인민들의 행복도 높아 간단 말이요. 우리가 땅 속에서 흘리는 땀이 땅 우에서는 꽃으로 피여 나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뒤떨어지고 남에게서 도움이나 받아서야 되겠소?》

그의 열기띤 목소리는 다섯 명 민청원들의 폐부를 찔렀다.

《옳수다. 그래 가지구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회가 있은 후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맹증을 떳떳이 받을 수 있겠소?》

《당장 대책을 세웁시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기록을 갱신하기 시작하였다. 미구하여 강 참모 초소를 따라 잡고 아득히 뒤떨구어 놓게까지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채탄장에서는 환성이 울랐다. 이 날 그들은 매 명 당 3.5 톤의 책임량을 24 톤씩 하여 일약 700%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그 날 작업을 인계한 후 이번엔 강 명현 동무가 강 참모 동무의 어깨를 철썩 두드리며 말했다.

《자! 전번엔 우리가 동무네 신셀 졌지만 이번엔 우리가 동무네를 도와 주지.》

《아니 그럴 필요는 없네. 우린 다시 동무네를 따라 앞설테니까!》

두 민청 돌격 초소원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늘어 가는 《붉은 기대》

어느 날 박 종섭 천리마 연선 중대의 베르트 롬베아 운전공 전 원풍 동무는 자기 안해에게 말했다.

《여보, 그 우리 도배지 사다 둔 게 있지?》

《네 있어요. 천정을 갈아 붙이려던 것이…》

《그걸 날 주오. 운전실부터 꾸며야겠소!》

《뭐 운전실을요?》

《그렇소! 하나를 보고도 열 가지를 안다는 속담이 있잖소. 운전공의 정신 상태는 그가 다루는 설비라든가 운전실을 보고서도 환하게 알 수 있단 말이요.》

안해는 그렇듯 직장 일에 마음을 쓰며 자기 기대를 사랑하는 남편이 더 없이 미덥게 생각되였다. 그래서 선뜻 남편의 요구에 응했다.

다음 날 남편을 직장에 떠내 보낸 안해는 가만히 앉아 생각하였다.

(나로서도 무엇인가 도울 일이 없을가?)

한참 동안 골돌히 생각하던 안해는 부랴부랴 회'가루를 한 임 얹어 이고 총총히 갱도로 향했다. 남편의 운전실 벽이라도 회칠하여 줄 심정이였다.

그런데 그가 한참 걸어 가는데 맞은 편에서도 누군가가 불룩한 가마니를 이고 오지 않는가! 남편과 같은 중대에 있는 유 태공 동무의 누이 동생이였다.

《어델 가요?》

《갱에요.》

《왜?》

《오빠 운전실 벽을 회칠해 드리려고요.》

《아이 어쩌문 우린 같은 걸음일가.》

그들은 떠들썩 웃으며 갱 내에 들어 갔다. 당일로 천길 같은 갱도 내에는 문화 주택 같이 회칠을 하고 천정까지 말끔히 발리운, 그리고 꽃병에서는 생화가 싱싱 향기를 뿜는 두 운전실이 생겼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떨쳐 나서 운전공들을 돕게 되기까지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안주 탄광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수상 동지께서는 갱 내의 설비는 군대의 무기와 같다고 교시하시고 그것을 더욱 잘 다루고 정통할 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운전공들은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불과 1 년 사이에 설비에 정통하고 자기들의 기능 급수를 평균 1 급 이상씩 높였으며 《운전공인 동시에 수리공이 되자》는 운동을 전개하여 설비의 리용률을 지난 해에 비하여 1.5 배나 더 높였다. 또한 그들은 기대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년중 1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다.

《붉은 기대》칭호 쟁취 운동에서도 벌써 15 개의 기대 중에서 7 개의 기대가 《붉은 기대》 칭호를 받았다. 모든 운전공들이 들끓어 번지고 있었다. 그러니 가족들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밖에…

그들의 모범은 곧 일반화되였다. 8 중대의 첸 롬베아 운전공 최 명자, 허 금자, 로 영자



동무들은 휴가 기간을 리용하여 230 개 이상의 첸볼트와 부속품들을 수집해 가지고 휴가 기일을 2 일이나 앞당겨 직장에 나타났다.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우리 민청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읽어 보니 속이 달아서 놀고 있을 수 있어야지요.》

이것은 로 영자 동무의 말이였다.

우리의 본때를 보이자!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채취 공업에서야 그저 굴진이 앞서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채굴 부문 로동자들을 인민 경제의 전초병들이라 한다면 굴진공이야말로 전초병 중의 전초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곳 청년갱에서 굴진을 선행시키고 석탄 생산을 400 톤에서 1,000 톤 수준으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우 8 편도 전차갱 신설 공사가 걸렸다. 그것을 하루 속히 끝내야만 하였다.

보통 기술적 타산으로는 이 공사를 적어도 2 개월 이상의 시일이 걸려야 완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갱 270 명의 청년들은 이 방대한 공사를 어느 휴일을 리용하여 불과 24 시간 이내에 해 제끼자고 결의해 나섰다.

일은 시간 당 150 립방씩 쏟아지는 석수와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 속에서 시작되였다. 감탕을 쳐내고 레루들을 깔았으며 광재들을 실어 들여 로반들을 다졌다. 몹시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쓰러질지언정 자기가 맡은 초소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신문 독보가 있었다.

《뭐 서울에서 또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다구. 야 참 가슴이 터지는 것 같구나…》

《여기엔 또 미군놈들이 남부 월남에서 녹아 났다고 씌여 있네.》

《여기 4 면을 보니 찌또란 놈은 케네디와 점점 한 짝이 되여 가는군.》

청년들은 지하 막장에서도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세계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시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로 알게 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는 그들의 가슴에 새로운 불'길을 일으켰다.

《자,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짓부시는 기세로 내밀어 보세!》

《그래, 놈들에게 우리의 본때를 보이자구.》

그들은 다시 일'손을 잡았다. 삽날과 곡괭이 끝에서 불이 번쩍번쩍 일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했다.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

어느 한 지점에서 갱벽이 펑 뚫리면서 석수가 내뿜어 다 다져 놓은 로반을 허물어뜨릴 위험이 생겼을 때 민청원 손 태운 동무는 총알처럼 달려 가 자기의 가슴으로 그 구멍을 꽉 막으면서 웨쳤다.

《동무들! 한 걸음도 물러 서지 말고 배수홈을 설치하시오.》 얼마 후 갱은 위험에서 구출되였다.

…바로 이와 같은 270 명 청년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에 의하여 2 개월이 걸리더라던 전차갱 신설 공사는 불과 24 시간 내에 끝나는 놀라운 기적을 내였다.

청년갱의 젊은 탄부들은 지난 11월 6일까지 년간 계획을 완수하고 지금 용기 백배 기세도 새롭게 보다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차게 내닫고 있다.

본사 기자

자립 경제 건설은 정치적 자주성의 담보

류 기 원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의 기초이다. 만일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한다면 정치에서의 외세 의존을 가져 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가져 온다는 것을 력사적 사실들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 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자립적 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매개 나라들은 이 합법칙적 요구를 준수함으로써만 자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국제 혁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자면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 등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선진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연료,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민족 경제를 제 힘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내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인민 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설정하면서 나라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과학 기술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여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나라에 오늘과 같은 위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여 놓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확고히 축성된 결과 오늘 우리는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현대적 중공업 기지와 국내 원료 원천지에 의거하는 믿음직한 경공업 기지 그리고 흉풍을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인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새 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전취물이며 오늘의 우리 행복과 후손 만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이다.

바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켰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미 의식주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 걱정을 모르게 되였다. 바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더욱더 대규모의 건설 사업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설 수 있게 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락후한 탓으로 남에게 수모를 받으며 매여 살던 쓰라린 과거를 영원히 되풀이하지 않게 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실현하며 세계 혁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실로 수천년의 자기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번영하며 오늘처럼 확신을 가지고 광명한 앞날을 내다 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립장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이 천백번 정당하며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민족주의적 편향》이니《폐쇄적인 경제》니《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로선이니 하면서 제멋대로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가지고 극력 반대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위《통합 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직 큰 나라만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 경제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들은 소위《생산 전통》과《자연 경제적 유리성》과《수익성》의《원칙》에서 제한된 몇 개의 경제 부문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초국가적 기관을 창설하여 거기에서 이상과 같은《원칙》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 지표들을 매개 국가들에 하달하면 매개 국가들은 하달된 기본 지표를 의무적으로 접수하여 가지고 생산을 진행하며 제품을 호상 납입하는 데 가격은 가공제품, 완제품은 비싸고 원료, 반제품은 눅은 세계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말이 과연 옳은가? 사리를 따져 본다면 이들의 리론이 괴이하고 황당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생산 전통》과 《자연 경제적 유리성》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생산의 발전에 의하여 개변되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어제'날까지 쓸모 없던 것도 오늘은 쓸모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어제'날까지 불리한 것도 오늘은 극복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발전된 공업의 전통을 가지고 나타난 나라는 없다. 전통이란 부단히 창조하여 나가는 것이다.

더우기 자연을 정복하며 불리한 것은 유리한 것으로 만들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나가는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이 어찌 전통 타령만 하고 있겠는가. 아무리 자연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하여도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인민과 함께 살아야 하며 자기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수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타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 견지에서 보아야 하며 목전의 수익성과 함께 인민

경제 발전의 전반적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장사'군식으로 타산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새로운 공업 부문도 창설하지 못할 것인 바 사회주의 건설을 망쳐 먹는 이러한《수익성》은 혁명가들과는 어떠한 인연도 없다.

실례로 만일 우리가《수익성》이 안 맞는다 하여 뜨락또르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매년 1,000대씩 수입한다 하여도 농촌 경리를 기계화하자면 80년이 걸릴 것이다.

원래 생산이 발전할수록 가공 공업이 원료 산지와 소비지에 접근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그런데 자체로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원료를 캐내여 수만리 타국에 가져다가 가공하며 수만리 타국의 가공품을 사다 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수익성》이 맞는단 말인가. 더구나 눅은 원료, 반제품이나 팔아 먹고 비싼 가공품이나 사다 써 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며 그 인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주장이며 맑스-레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

만일 이들의 주장 대로 한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선 경제적 면에서 보자.

소위《생산 전통》이니《자연 경제적 유리성》이니《수익성》이니 하는 구실밑에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들만 발전시킨다면 그 나라의 민족 경제는 기형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나라들에서《생산 전통》이 있는 부문만 발전시키게 된다면 이 나라들은 현대적 공업을 가지지 못한 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은 농업까지도 재 조직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계제(制)공업》인데《생산 전통》이니《자연 경제적 유리성》이니《수익성》이니 하면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 중공업을 건설하지 않고 농사나 짓고 땅'굴 (채취 공업)이나 파 가지고서는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매개 나라의 내부 원천과 인민들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없으며 매개 나라에서 자체의 요구에 적응하게 경제 건설을 주동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고도의 기동성을 요구하는 인민 경제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 이것은 불피코 경제 발전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 오며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해독을 끼칠 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사회주의 나라 경제는 어느 한두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되고 어느 한두 나라 경제 발전의 리익에 복종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를 벗어 나지 못하고 과거의 농업 국가는 계속 농업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월성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의 소멸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는 바 그 기초에는 경제 발전의 균형성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생산력의 지리적 배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들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또한 국방력의 강화와도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위《생산 전통》과《자연 경제적 유리성》과《수익성》에 기초하여《통합 경제》와

《국제 분업》을 한다면 모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들 사이의 발전 수준 상 차이도 퇴치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좌절시키는 것은 물론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장성에도 심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장성은 이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력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서는, 례컨대 농사나 짓고 땅'굴이나 파 가지고는 과학 기술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높일 수 없으며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할 수 없다. 이것은 기형적인 경제 조건 하에서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인 과학 기술 및 문화의 전면적 발전과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의 육성을 위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오늘 《통합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국제 분업과 경제적 협조를 방패로 들고 나오면서 《폐쇄적인 경제》니 《고립된 경제》니 하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마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립 경제 건설이 국제주의적 협조와 원조에 모순되는듯이 사태를 외곡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주의적 협조의 측면에서 보자.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 내의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호상 간의 밀접한 련계와 협조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근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부족한 것은 형제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해결하며 동시에 형제 나라들에 없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들과 제품들을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개별적 나라들에서 강력한 자립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사실 상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경제적 협조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오직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호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만 매개 나라의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고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와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킬 수 있다. 이것은 매개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적 리익과 국제적 리익의 통일을 보장하는 정당한 방도로 된다.

이와 같이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국제적 협조의 리익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원만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립적 민족 경제를 어떻게 《폐쇄적인 경제》니 《고립된 경제》니 하면서 비방할 수 있겠는가.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바와 같이 오늘날 세상에는 《폐쇄적인 경제》니 《고립된 경제》니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억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슨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경제적 협조를 결코 반대한 적이 없으며 또 반대할 수도 없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동지적 협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수정주의자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부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소위 《통합 경제》의 해독성을 정치적 측면에서 보자.

현재 어떤 사람들은 《통합 경제》의 간판 밑에 형제적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말살하고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통제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 경제에 얽매인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심지어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통상 관계까지 《원조》라고 떼를 쓰면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는 그들의 소행으로 보아 《통합 경제》라는 것이 경제적 타산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얽매여 놓고 좌지우지하려는 정치적 타산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 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없으며 독립과 자주권이 없이는 진정한 국제적 협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반대하고 《통합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혼란과 침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며 사회주의 진영의 진정한 국제적 협조와 공고한 단결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소위 《통합 경제》를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하에 지난날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대 수정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자력 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확고히 관철시킴으로써 계속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것이며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 것이다.



쥐; 내가 먹을 식량까지 빼앗아 가다니……

그림. 고 임홍

공산주의 교양의 약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량 환 갑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물질 기술적 준비와 함께 사상 정신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 품성을 소유한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다.

근로자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상 교양 사업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보다 몇 배나 힘들며 또 오랜 기간을 요하는 어려운 과업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교양, 이것은 어떤 객관적 조건이 조성된 일정한 단계에 가서만 전개할 과업이 아니며 또 일시적인 과업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의 계급 사회에서 형성되였으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오래동안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게 된다.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 사업을 약화시킨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사상적 침습이 있는 조건 하에서 그것은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막대한 해독을 끼칠 수 있다.

쓰딸린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낡은 관습과 습성, 전통과 편견은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및 관습들과 투쟁하며 우리 사업의 일체 분야에 있어서 이것들을 반드시 극복하며 끝으로 새 세대를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한다는 이것은 우리 당의 당면 과업으로서 이것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우리 당은 항상 사상 교양 사업에 제1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를 기본 방법으로 삼으며 생산 현장을 중요한 거점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으며 인간 개조 사업이 근로자들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 전국이 붉은 일색으로 꾸려졌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인민을 사랑하고 집단과 동무를 사랑하는 집단주의 정신이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공동 재산을 애호하고 로동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확립되여 가고 있다.

경험은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때만이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킬 수 있으며 혁명 력량을 정치 사상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사회주의 사회의 그 어떤 성숙된 발전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며 사람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차요시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는 오직 물질적 토대만 축성되면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교양은 객관적 조건이 조성된 기초 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자각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는 물질적 자극만 주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능률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근로 대중에 대한 속물적 태도이며 군중들에 대한 멸시이다. 공산주의 교양이 이렇게 속물적으로 진행된다면 근로 대중의 혁명 사상과 계급 의식은 마비되고 다만 목전의 물질적 생활에만 관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민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자도 인민 대중이며 가장 힘있는 자도 인민 대중이다. 그러므로 수백만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계급 의식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할 수 있으며 온갖 적대 계급과의 성과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진영은 모든 물질적 수단들과 함께 근로 대중의 사상적 무장이 튼튼할 때만이 굳건히 보위될 수 있으며 공고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 혁명도 가일층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강력한 핵 무력이 출현한 오늘에 있어서 인민들은 그의 거대한 파괴력 앞에서 무력하게 되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대중을 교양할 대신에 핵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류 멸망설》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인민들을 비관에 빠지게 하고 제국주의자들을 더욱 핵 공갈과 침략 책동에 매여 달리도록 추동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과거 관념론자들이 자연 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맑스-레닌주의를 낡았다고 하면서 전복하려고 한 반맑스주의적 시도와 본질 상 다를 것이 없다.

우리의 경험은 아무리 위력 있는 핵 무력도 인민 대중의 힘에는 비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신형 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맑스주의를 외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는 핵 무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달성하였다.

로동 계급을 위대한 10월의 사상으로,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의식과 세계관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혁명을 수행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특히는 계급 교양의 경시는 결국 혁명을 그만 두자는 것이며 이미 피로써 얻어진 혁명의 전취물까지도 적에게 넘겨 주자는 변절자의 책동이다.

우리는 수정주의자들이 부르죠아 사상과 인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경시하거나 포기한 결과에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부르죠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침투되고 있으며 날로 조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한 곳에서는 부르죠아 서방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과 무비판적 모방, 퇴폐적인 생활 기풍이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휩쓸고 있으며 혁명과 투쟁, 공산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리익과 오늘의 향락에만 급급하는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적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이 약화되고 있는 곳에서는 우선 그들 속에서 혁명의 리익, 당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높이 내세우는 개인 리기주의가 극도로 조장되고 있다.

사람들은 공동 경리에서 열성을 발휘할 대신에 개인 터밭을 가꾸는 데만 관심을 돌리며 채소, 과실 등을 시장에 가져다 비싸게 팔아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다. 농민들 속에서는 밀주, 사냥을 일삼으며 국가 재산을 함부로 침범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일어나며 공영 주택을 안면을 리용하여 아들에게 상속하는가 하면 상속 받은 주택을 가지고 세방을 주어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이 주면 직장을 제멋대로 옮기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차요시하고 물질적 자극만을 일방적으로 고취하면 바로 이와 같은 참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개인 리기주의가 발생하고 조장되는 이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원인을 물질적 부의 충족이 적은 데서, 근로자들에 대한 분배가 적은 데로부터 초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사상 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강조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외곡하는 것이다.

경험은 생활이 향상되는 순탄한 환경에서나 혁명이 간고한 환경에서 나를 막론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현실은 또한 수정주의자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홀시한 결과에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 속에서 로동을 천시하고 기생적 생활 양식을 좋아하며, 불로 소득으로 살려고 하며 국가와 근로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말로서는 로동에 대한 교양이 《사상 사업의 심장》이요, 《척추》요 하면서 공산주의는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고 떠벌리기는 하나 로동 교양을 실지로 옳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사태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오직 계급 의식이 확고할 때에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산주의 교양을 약화시킨다면 청년들 속에 서방 양풍이 침습하여 혁명에 대한 권태를 느끼며 걷잡을 수 없는 부화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간다는 것을 보고 있다.

오늘 수정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마치도 자본주의 사회를 방불케하고 있다. 새 사회 건설에서 주력군이 되여야 할 청년 남녀들이 허영에 들떠서 돈과 화려한 별장, 자동차를 그리며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남녀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화려한 별장과 자동차이며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전부로 되고 있다.

《오늘을 즐기자, 래일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가》 바로 이것이 수정주의에 침습된 청년 남녀들의 생활 구호이다. 과연 이것이 오늘 미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 청년들이 바라는 《행복》, 《희망》과 그 무엇이 다른 것이 있단 말인가!

사상 교양 사업이 홀시된 곳에서는 심지어 살인, 강간, 국가 재산 횡령 등 사회적 법 질서 위반 사건이 격증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이 원인도 황당하게 물질적 수요에 대한 충족을 주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법 질서 위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분배가 많아져야 하며 동시에 법과 사회적 작용이 가지는 힘을 능숙하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의 분석이 황당하며 부르죠아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문제는 사람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교양하지 않은 데 있으며 물질적 관심성만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자유주의화》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사회적 법 질서 위반 사건은 절대로 근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곧 혁명에 대한 태도 여하, 혁명을 끝까지 하자는가, 안 하자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는 앞으로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제 1 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우화

목동과 승냥이

어느 날 산중에서 목동이 양떼를 몰아 가는데 나무 숲을 헤치고 늙은 승냥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는 목동에게 어정어정 다가 와 하는 말이

《목동 어른, 놀라지 마십시오. 내 평생을 몹쓸 노릇만 해 온 터이지만 이젠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당신은 짐승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시고도 잘 사는데 왜 나라고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정말이지 일을 하고 사는 당신들을 보면 막 부러워 못 견딜 지경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였다.

《그래 너는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목동이 물었다.

그러자 승냥이는 한걸음 다가 서며 《당신이 하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양몰이를 하라면 하고 풀밭을 지키라면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양들을 잘 돌봐 주는가!》

그리고 승냥이는 삭고 닳아서 껍해진 이'발을 드러내 보이며 씩 웃는 것이였다.

목동은 넌지시 말하였다.

《그럼 좋다! 양몰이를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양을 진실로 돌보겠거들랑 네 그 어금'이를 마저 뽑아 바치라!》

《뭣이라구요. 이'발을 뽑으라구요? 그건 나를 죽으란 말과 같애요. 내가 이'발을 뽑는다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승냥이로 남을 수도 없습니다.》

《에끼 고현 놈 같으니…》

목동은 흉물스런 승냥이를 이렇게 꾸짖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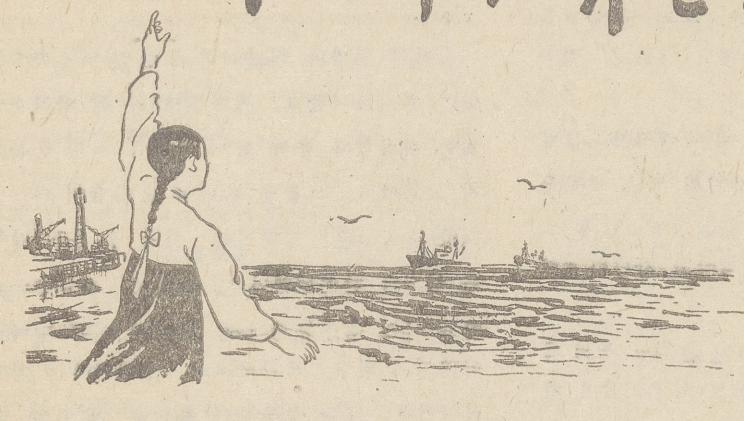
《네가 진정 마음을 고쳐 가지고 양의 동무가 되려고 할진대 그것이 무슨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설혹 네가 어금'이를 뽑는다고 약속을 한대도 나는 너를 쓰지 않을테다. 개꼬리 삼 년 묵어도 황모가 될 수 없다고 내 어찌 승냥이를 양몰이로 쓰겠느냐? 승냥이가 승냥이로 있으면서 제 어금'이를 뽑을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실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1959년 여름,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가 있은 직후의 일이다.

어느 날 해주 수산 사업소에 한 나어린 처녀가 찾아 왔었다. 이름은 조 경림이라 하였고 나이도 열 아홉이라 하였다. 동그스럼한 얼굴에 예지로 빛나는 두 눈이 새'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허나 몸만은 몹시 약해서 바다'일에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이 때 사업소에서는 새로 녀성호 선원들을 선발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경림 동무는 자기도 거기에 망라시켜 달라고 열렬히 탄원해 나섰다.

사업소 로임 부장은 몸이 무척 약해 보이는 이 처녀를 아끼는 심정에서 여러 가지로 설복해 보았으나 보람이 없었다.

《부장 동지! 저를 꼭 바다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간밤에도 밤새 강원도 수산 부문 당 열성자 회의에서 하신 수상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못 이루었어요. 만약 저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여기에서 돌아 가지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처녀의 눈에는 좀처럼 양보할 상 싶지 않는 확고한 결의가 어리여 있었다. 해 종일 처녀는 부장의 책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로임 부장은 그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승락하고야 말았다. 그것은 1959년 10월이였다. 배를 타게 된 경림이의 기쁨은 더 할나위 없었다.

초기 그들의 녀성호는 범선으로 연해에서 고기 잡이를 시작하였다. 몸이 약한 경림에게는 여러 가지 곤난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기중 참기 어려운 것은 배멀미였다. 속을 온통 드러내는 것 같고 눈앞이 아물거렸다. 그는 끝내 배 우에 쓰러졌다. 동무들이 그를 안아다 배의 한쪽에 눕여 주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첫 새벽에 녀성호 작업반장인 김 순복 동무가 보니 그는 배 우에 오도카니 앉아서 훤한 달'빛에 그물을 깁고 있었다.

김 순복 작업반장은 그만 눈'굽이 뜨거워났다.

(참으로 이악한 처녀로구나. 간밤에 그렇게 배멀미로 앓고서도… 저 어린 처녀의 어디에 도대체 그런 힘이 숨어 있을가?)

경림은 가까이 다가간 작업반장을 보더니 생긋 웃으며 말했다.

《엊저녁 그물코가 께진 것을 봐 두었기에 깁고 있어요.》

《그래 몸은 좀 어떻소?》

《글쎄 멀미에는 닭밥(닭줄에 묻어 올라 오는 감탕)이 약이라기에 좀 먹었드니 괜찮아요.》

김 순복 작업반장은 다시 한 번 목이 메여 올랐다. 얼마나 기특한 동무인가!

그 후 경림이는 배'일에 익숙되기 위해 남보다 갑절이나 애썼으며 그 어떤 일에서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동무들을 위해 자신의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밥 짓는 일도 도맡아 하군 하였다.

차츰 생활을 통하여 서로 친숙해지자 경림이는 어느 날 동무들에게 자기의 지난 생활을 이야기하였다. 그제사 동무들은 경림이가 그렇듯 사업과 생활에서 열성적이고 강인한 《비결》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1950년 우리 인민 군대의 후퇴 때였어요. 우리 고향 벽성 땅에도 원쑤놈들이 기여 들었어요, 그 때 우리 아버지는 면당 위원장이였어요. 저는 당시 열 살이 였는데 불리한 정황 속에서 인민들의 후퇴 조직을 끝내고 뒤늦게 후퇴하다가 그만 원쑤들에게 붙잡혀 가는 아버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몹시 음산한 날이였어요. 나는 아버지를 보며 울었지요. 아버지는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림아, 울지 말아라. 우리는 꼭 이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 밑에서 다시 행복할 날이 꼭 올 게다. 원쑤놈들에게 굴해서는 안 된다.>

그 후 아버지는 끝내 돌아 오지 못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말만은 나의 가슴에 깊이 간직되였어요.

며칠 후 원쑤놈들은 빨갱이 씨까지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또 우리 집 여덟 식구와 큰 집, 작은 집 식구까지 몽땅 붙잡아 갔어요. 우리는 어느 낭떠러지에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총살 당하게 되였어요. 저는 그 때 우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놈들을 똑똑히 보았어요. 거기에는 옛날 지주의 아들 조창구란 놈도 있었는데 그 놈은 치안대장이였어요. 그리고 그 놈의 뒤에는 승냥이 같은 눈알을 껌적거리는 미군놈이 서 있었어요. 나는 그 때 놈들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아버지의 말 대로 울지 않았어요. 먼저 81 세 난 우리 할아버지가 〈김 일성 장군 만세!〉를 웨치며 쓰러졌어요. 그 다음 온 식구가 차례차례로 쓰러지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눈을 뜨니 하늘에 별이 총총하더군요. 피비린내가 확 풍기고는 숱한 사람들과 우리 집 식구들이 내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을 보니 그만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이지 해방 후 우리 생활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그러나 나는 원쑤놈들에게 굴해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고는 구덩이에서 기여 나왔어요. 나는 부상당한 몸으로 새'하얀 눈벌판을 기여 가면서 반드시 앞으로 이 원쑤를 갚으리라고 맹세했어요.》

동무들은 그 날밤 그의 몸에서 두 군데의 상처 자국을 보았다. 그 때 한 방의 탄알은 그의 오른 쪽 어깨를, 다른 한 방은 그의 왼쪽 팔목을 뚫고 나갔던 것이다.

《그 후 의지가지할 데 없는 나를 이렇게 키워 준 것은 당과 우리의 고마운 주권이였어요. 그걸 생각하문 뼈가 부서지게 일해도 정말 모자랄 것만 같아요.》

경림이는 이렇게 말하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제사 동무들은 그가 남달리 자기 사업에 충실한 래력을 알게 되였다.

그 후 경림이는 그야말로 이악하게 일했다. 그는 차츰 키잡이, 그물 다루기에서도 남보다 못지 않게 되였으며 바다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언제나 앞장에 서군 하였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다. 그러나 그들 녀성호 선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바다에 나갔으며 나가는 고기는 따라 가 잡고 들어 오는 고기는 맏받아 나가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면서 적극적인 어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매달 자기 계획을 130%~150% 이상씩 넘쳐 실행하군 하였다.

이러한 추운 겨울철 작업에서도 경림이는 언제나 앞장에 서군 하였다.

연해에서 조개 같은 것을 캘 때에 남먼저 차거운 물에 들어 서는 것도 경림이였고 그물이 바다 속 암초에 걸려 찢어질 위험이 생겼을 때 먼첨 뛰여 들어 그것을 건진 것도 경림이였다.

1961년 4월 경림이는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다. 그것은 경림의 생활에서 새로운 투쟁의 리정표로 되였다. 그 때부터 경림이의 모범성은 더욱 제고되였다.

그 해 7월 19일에 있은 일이다.

그 날 그들의 범선은 룡매도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풍세가 사나와지더니 태풍이 래습하였다. 배는 격랑 속에서 나무'잎처럼 흥뎅이였다. 산 같은 파도가 사정 없이 배 옆구리를 들이갈기군 하였다. 그 바람에 그만 닻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닻줄이 끊어졌다. —

이것은 그야말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선이 끊어진 것과도 같은 비상사건이였다. 배는 사정 없이 파도에 휘말리여 떠내려 가기 시작하였다.

파도는 쏴—하고 몰려 와서는 배'전을 힘차게 때리며 비말을 얼굴에 들씌우군 하였다.

그런 때마다 배는 방금 뒤엎어질 것만 같았다. 담이 약한 처녀들 중에서는 벌써 어쩔 줄 모르며 덤벼치는 동무들도 있었다.

한쪽에서 선장이며 김 순복 작업반장의 목소리가 울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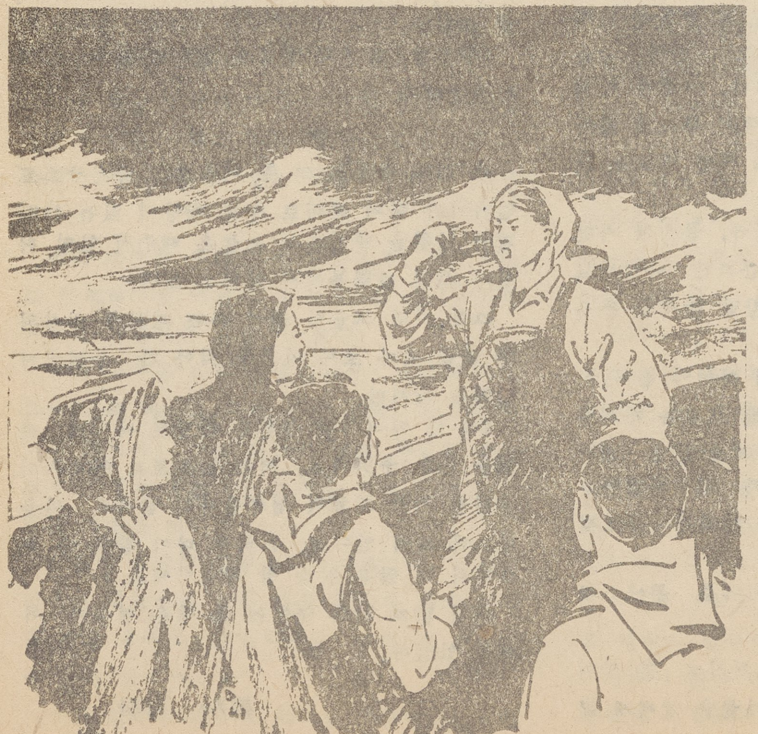
《침착들 하시오.》

《일어 서면 배가 뒤엎어지오. 몸을 푸시오.》

《모두 힘껏 노를 저어요.》

그러나 녀자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휘몰아치는 태풍을 이겨 낼 수는 없었다. 배는 자꾸만 남쪽으로 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쏟아지는 소낙비로 하여 자위를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근방엔 도움을 받을 아무런 배도 없었고 구호선을 불러 올 방도도 없었다. 그들은 바람세를 리용하여 돛도 달아 보았다. 그러나 그것마저 사납게 울부짖는 태풍 때문에 인차



찢어지고 말았다.

배는 자꾸만 분계선 가까이로 흘러 가고 위험은 각일각 육박하였다. 원쑤놈들에게 붙잡힐 것인가? 싸우다 죽을 것인가? 문제는 이렇게 제기되였다.

김 순복, 조 보비, 민 정덕, 최 정자…등 10 명의 녀성호 선원들—그들 중에는 3 명의 로동당원과 7 명의 민청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배 우에서 공개 당 분조회를 열었다. 먼저 경림이가 열렬하게 웨쳤다.

《동무들…미국놈들은 우리의 조국 땅을 짓밟고 부모형제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입

니다.

우리는 죽어도 놈들에게 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놈들을 물어 뜯는 한이 있더라도 놈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쏴쏴…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앞이마의 머리칼을 날리며 웨치는 경림이의 눈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의 불꽃이 번쩍거렸다.

동무들은 그의 목소리에 호응해 나섰다. 모두들 비장한 결의들을 다졌다.

갑자기 앞에 성벽 같은 물체가 우뚝 보였다. 그것은 적선이였다. 배는 사정 없이 그리로 흘러 갔다. 1,000 메터…800 메터…

경림이는 다시 한 번 10 명의 전우들을 돌아 보았다.

얼굴마다에 비장한 결의를 담고 원쑤들을 노리고 있는 그들…경림이는 그들의 운명이 다름 아닌 자기 일신에 달린듯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경림이의 귀에는 불현듯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 오는듯 하였다.

《경림아, 원쑤들에게 굴하지 말아라.》

(그렇다! 그 어떤 정황 밑에서도 우리는 원쑤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런 때 놈들과 일대일로 싸울 생각이나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개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놈들과 싸워 이겨야 하며 싸워 이기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 가야 한다. 원쑤를 타승할 그 어떤 방도는 없을가?)

그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다. 불시에 사면팔방으로 적들에게 포위된 간고한 나날에도 바위'굴에서 폭탄을 만들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장한 모습이 떠올랐다.

(옳지,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강의한 투지—그러한 의지는 결국 기적을 낳는 것이다. 경림이의 머리에 무엇인가 번쩍하였다.

그는 전체 녀성호 선원들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자… 동무들! 우리 모두 치마를 무어 재돛을 만들자요.》

순식간에 옷보따리들이 헤쳐지고 열 쌍의 손이 거기에서 꺼낸 색색 치마들을 날쌔게 홀가매 나갔다. 그것은 실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적과의 판가리 싸움이기도 하였다.

시간은 분초를 재기며 자꾸 흘렀다. 따라서 배도 사정없이 적선 쪽으로 밀려 갔다.

경림이는 동무들을 부추기며 더욱 재게 손을 놀렸다.

《자, 모두 빨리 돛을 만들자요. 우리는 기어코 놈들과 싸워 이겨야 해요.》

갑자기 적들의 군함이 그들을 발견한듯 이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 한 척의 어선을 생포할 작정인 모양이였다. 이 위기 일발의 순간을 두고 아낙네들과 처녀들의 손은 한층 더 날쌔게 움직이였다.

…드디여 그들은 적선 200 메터 앞에서 재 돛을 높이 달았다. 배는 때마침 방향을 동북쪽으로 돌린 바람세를 따라 살 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혁명 가요를 높이 부르며 기지로 향하였다.

끝까지 원쑤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긴 동무들을 보는 순간 경림이는 끝내 눈물이 두 볼을 흘러 내리는 것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북쪽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마음의 보고를 드렸다.

(수상님! 당신의 딸들은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겼습니다.)

× ×

초 경림 동무는 그 후 녀성호의 부선장으로 일하다가 당의 배려로 수도 평양에 있는 인민 경제 학원을 졸업하고 오늘은 해주시 인민 위원회 상업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저녁 노을이 붉게 타는 관리부 청사의 창 밖을 내다 보며 자기를 찾아 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 때 아버지의 유언은 참말로 나에게 큰 힘을 안겨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계급적 원쑤들과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 있어요. 그리구 당이 맡겨 준 초소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작정이예요.》

그의 맑고 맑은 눈에는 불 같은 결의가 어리여 있었다.

본사 기자



남북 조선 청년들은 서로 협조하며 단결하자!

김 주 경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비운은 18 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 민족적 비운을 청산하는 문제는 일순도 유예할 수 없는 절박한 민족 지상의 과업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통일 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통하여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해 왔다.

조국 통일 문제에 대한 이러한 방침은 조선 인민의 리해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조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여기에 그 어떤 모순이나 리해 관계의 대립이란 있을 수 없다.

누가 누구를 위한 통일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을 위한 우리 민족 자체의 통일인 것이다.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로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자신인 것이다.

때문에 조국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주적 원칙에 립각하여 남북 간의 협상과 상호 리해의 기초 우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 강토 안에서 유무 상통하며 동생 동락해 왔다. 우리가 어찌 한 민족 한 형제로써 남녘 땅 겨레들이 겪고 있는 전대 미문의 재난과 불행에 대하여 이 이상 더 수수 방관할 수 있겠는가?

18 년여에 걸친 미제의 군사 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류례 없는 재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민족 경제는 더욱더 파산 몰락되고 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생활은 《사상 최악》의 참경에 처하여 있다. 기업의 부단한 파산과 조업 단축은 로두에 700만을 헤아리는 실업자, 반실업자의 홍수를 낳아 놓았다. 엄동과 함께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거만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남조선 위정자들은 이 참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대신에 자기들의 자리 다툼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 <군정>을 <민정>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사태가 개변될듯이 부산을 떨면서 인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 사태는 남조선에서 미군 강점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자주, 자립도 《민생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때문에 최근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에서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자

생 자결과 경제의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현 남조선의 파국적 상태를 종식시킬 유일한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은 조국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운명을 타개할 명확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하루 속히 미군을 남조선에서 내몰고 양키 침략자들 때문에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현존 군대 수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일 데 대하여서도 재차 천명하였다. 그리고 남북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또다시 주장하였다.

남북 조선 인민들에게 다 같이 리롭고 합당한 이러한 제안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추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을 주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합리적인 방도는 민족의 백년 대계를 위하여 북반부에서 이미 축성해 놓은 강력한 자립 경제의 토대와 평화적 통일을 일구 월심 바라면서 불패의 힘으로 결속되고 있는 민족 주체적 력량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하여 그 가능성은 더욱 확고 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문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그들의 작간으로 일부에 끼쳐진 오해와 불신을 제거해 버린다면 능히 남북 합작과 전 민족적 단합, 화목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국 통일의 위업도 성취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남북 간의 정치적 리해와 사회 제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 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 수 없으며 남북이 합작 못 할 리유로 될 수 없다.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와 민족들간에도 서로 협조하고 유무 상통하는 오늘 단일 민족인 조선 민족끼리 합작 못 할 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남북 합작은 남북 조선 인민에게 다 같이 유리하며 전 민족의 편익을 보장할 뿐이며 손해를 줄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남북 합작을 실현 한다면 북조선의 공업 지대와 남조선의 농업 지대 간의 련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적 토대에 의거하여 남북 조선의 경제를 동원 리용한다면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최단 시일 내에 능히 복구 발전 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남북이 힘을 합치고 유무 상통하면서 합리적인 분업에 기초하여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과 같은 참경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은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북반부에는 그러한 밑천이 확고하게 마련되여 있다. 북반부에서 이룩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들은 파괴된 남조선의 경제를 일궈세우고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가져옴에 있어서 결정적인 밑천으로 된다.

오늘 이렇게 나라 안에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은 남북 합작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외세에 매달리면서 《멸공 통일》, 《승공 통일》을 계속 고창하며 남북 간의 어떠한 협조나 교류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북반부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여 공산주의 세력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여 보겠다고 꿈 꾸고 있다.

그러나 《북진》 전쟁으로 《승공 통일》 하려던 미국의 호전 장군들과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의 시도는 이미 10여년 전에 시험해 본 것처럼 영원히 실현될 가망이 없는 망상이다.

오늘 조선 인민의 형편은 10여년 전과도 또 다르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세월을 주름 잡아 나가는 위력한 북반부의 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군사적인 모험으로 《승공 통일》을 꾀하며 든다면 그들은 섬멸적인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종국적인 패배를 당하리라는 것은 극히 자명한 일이다.

《승공 통일》—이것은 민족 분렬을 강요하며 전 조선을 아세아 침략의 군사 기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망상을 대변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은 의연히 외세의 힘을 빌어 나라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한다. 그것 역시 지난날의 력사적 경험이 실증해 주듯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나라의 절반 땅에 튼튼한 경제 토대가 있으며 그를 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국주의의 원조를 구걸해야 하며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와 민족을 파멸에 빠뜨리겠는가?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 간의 평화적 협조와 교류, 합작 등을 그 어떤 정치 군사적 허약성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인식 착오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남북이 합작하고 전 민족이 단결하여 자주, 자립하는 길만이 외래 침략 세력을 몰아 내고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복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며, 남녘 형제들을 오늘과 같은 참경에서 구출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적인 발전과 영원한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데 있다.

남북의 합작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만나야 한다. 만나야 서로의 리해도 깊이 할 수 있으며 호상 간의 불신임도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도 재작년 5월 남북 학도 회담을 위하여 온 나라 청년들 속에 고조되였던 감격을 잊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토록 전국 청년들을 흥분시켰던가!

그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분출이였던가? 아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우람찬 함성 속에는 헤여졌던 혈육들이 서로 만나 얼싸 안으려는 강렬한 지향이 깃들어 있었고 통일에 대한 전 민족적인 열망이 깃들어 있다.

남북이 합작하지 못 할 리유는 없으며 남북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지 못 할 리유도 없다.

서울도 좋고 평양도 좋고 판문점도 좋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허심 탄회하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상론하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민족 앞에 지닌 청년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군중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혁명 수행에서 청년 학생들이 놀아야 할 응당한 교량적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숭고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은 자체의 투쟁 대오를 튼튼히 결속하는 문제이다. 투쟁에서 단결은 승리의 위력한 무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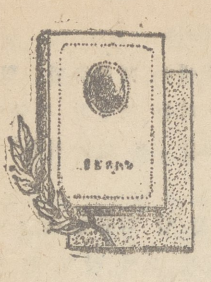
굳게 단결하여 투쟁만 한다면 미제 원쑤들은 더는 이 땅에 배겨 있지 못할것이며 삼천만 인민이 절절히 념원하는 조국 통일은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미제를 몰아 내자!

엄연한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가장 교활하고 악독한 침략자이며 가장 탐욕적이고 강도적인 략탈자이며 가장 야수적이고 란폭한 인간 도살자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다. 놈들을 이 땅에 그냥 두고는 그 어떠한 자주, 자립과 자유 행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호매하고 용감한 남녘의 청년들은 18 년 간의 생활 체험에서 교훈을 찾고 일치 단결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투쟁만이 살'길이며 승리의 길이다.

— ☆ —



레닌의 학습에 대한 일화

레닌은 일찌기 《가령 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이 퍽 적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좀 더 알 방법을 택할 것이다》고 하였다.

사실 레닌은 거의 인류의 지식의 일체 령역에 관련되는 것을 정통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맑스주의에 대하여 깊이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를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를 창시하였다.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레닌의 이와 같은 위대한 공적은 그의 정확한 학습 태도와 학습 방법과 갈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 ×

레닌은 리론과 실천과의 밀접한 결합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언제나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이 있을 수 없으며 혁명적 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레닌은 리론과 실천과의 리탈은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남겨 놓은 가장 큰 해독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생활과 실천으로써 리론을 검증하는데서 모범을 보였다.

레닌이 맑스의 로작들을 깊이 학습한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학습을 위한 학습에 그 목적이 있은 것은 결코 아니였다. 그의 학습 목적은 어디까지나 맑스에게서 배우며 거기에서 로동 운동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레닌은 또한 학습을 혁명 위업의 절실한 요구와 분리시키지 않았다.

일례로 그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도 레닌이 로씨야 마하주의자의 반동적 철학 사상을 론박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레닌은 이 저서를 쓰기 위하여 마하주의의 대표자인 마하, 아베나리우스 및 기타 신도들의 저작을 세심하게 연구하는 한편 자연 과학 저작들까지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 후 그는 런던에 가서 브리텐 박물관의 자료를 약 한 달 동안이나 연구함으로써 마하주의자들의 말할 수 없이 비굴한 모든 견해를 알아 냈다.

이렇게 저작된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은 마하주의자들의 반동적 철학 사상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였다.

× ×

레닌의 지식은 매우 넓고 깊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시종 일관 깊이 있게 학습하였으며 또한 언제나 분석적이며 비판적으로 학습하였다.

레닌이 읽던 수다한 책들의 페지마다에는 독서 표기들이 가득하였다. 책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의 손에는 연필이나 철필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머리를 숙이고 사고하면서 글'줄 사이에 점을 찍거나 줄을 그어 나갔다.

만일 책이 자기의 것이라면 책장 변두리의 흰 곳에다 알기 쉽게 기호와 반점을 치며 읽었다. 그는 이러한 페지의 번호를 책 표지에다 적어 놓았으며 중요한 페지나 문장에는 두 줄씩 쳐 놓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 한 줄씩 그어 놓군 하였다.

그는 《상당한 독자적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떠한 중대한 문제에서나를 막론하고 그 진리를 찾아 낼 수 없으며 노력을 두려워하는 자이면 그는 진리를 찾아 낼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특히 레닌은 기억력이 비상하였으나 결코 이에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때든지 복습을 부단히 진행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리해하고 있었다.

× ×

레닌은 또한 체계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독서하였으며 책을 읽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서적을 목적 없이 이것저것 읽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택한 후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때때로 그는 책을 놓고 서재 결 오솔'길로 오가군 하였는데 이럴 때면 의례히 독서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군 했다. 그리고는 앉아서 독서에 몰두하였다.

× ×

레닌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 하에서도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레닌은 1895년 12월 짜리 경찰에게 체포되여 감옥에 있으면서도 부지런히 학습하였다.

그는 우유를 잉크로, 빵을 잉크병으로, 낡은 책과 신문지들을 원고지로 삼아 많은 서한과 삐라를 쓰기도 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위대한 로작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감옥에서 글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간수가 오면 레닌은 《잉크병》(빵)을 얼른 먹어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어떤 때는 하루에 《잉크병》을 여섯 개나 먹어 버린 일까지 있었다.

레닌은 몹시 추운 씨비리에서의 류형 생활의 악조건 하에서도 불과 3 년 동안에 수 많은 서적들을 독파하였다.

그는 자기의 저서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쓰기 위하여서만도 무려 583 권의 참고 서적을 리용하였다.

레닌은 어떤 도시에 가 보아 그 곳에 도서관이 없으면 그것이 이 도시의 결함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는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책이 없으면 매우 심심해 하였다.

1920년 공민 전쟁 시기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레닌은 시간을 짜내여 스웨르들로브 공산주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신간 도서들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 때 레닌은 루만체브 박물관 도서실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었다.

《참고에 필요하오니 다음과 같은 서적을 하루만 빌려 주시오…만일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참고 서적들을 대출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사무가 끝난 뒤 저녁이나 밤에 빌려다 볼 수 없습니까? 아침에는 꼭 돌려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레닌이 가장 긴장되고 복잡한 순간에도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한히 겸손하였다는 한 가지 례에 지나지 않는다.

× ×

레닌은 또한 학습과 휴식을 옳게 배합하였다. 그는 학습에 열중할 때일수록 휴식과 체육 활동에 더욱 주의를 돌리였다.

그는 학습할 때에는 모든 정력을 학습에 집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습에서 더욱 많은 능률을 올리군 하였다.

레닌은 한 시간 동안 공부한 다음에는 밖에 나가 체조를 하였고 다시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좀 휴식하거나 숲 속에서 산'보를 하다가 곧 돌아 와 다시 독서에 정력을 기울이군 하였다.

레닌은 자기 서재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철봉틀도 마련하여 놓고 자주 철봉 련습을 하기도 하였다.

민 영 철

과연 《서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리 기영의 단편 《원보》에 대하여—

김 헌 순

단편 《원보》에는 《서울》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다. 이것은 결코 공연히 덧붙여진 군더더기가 아니다. 여기에는 작가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원보》는 해방 전 1920 년대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발전 로정에 있어서나 작가 리 기영의 창작적 길에 있어서 자못 의의 깊은 단편 소설이다.

1920 년대에 들어 서면서 조선 로동 계급이 명도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 나날이 앙양되던 환경 속에서 첫 발'자국을 내여디디였던 초기 프로레타리아 문학은 그 강한 혁명성과 전투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복마전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할 인간이 누구이며 어두운 오늘을 광명한 래일에로 어떻게 접근시켜야 하는가를 예술적으로 해명하는 높이에까지는 이르지 못 하였다.

이것은 당대의 문학을 대표하는 최 서해의 《탈출기》만이라도 상기한다면 사태가 명백할 것이다. 즉 주인공 박군은 고통스러운 생활 체험을 통하여 투철한 계급 의식을 갖게 되고 민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을 탈출하게 되는 과정까지는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으나 그 이후 박군이 대체 어떤 길을 거쳐 어떻게 그처럼 허위스럽고 요사한 공기의 《원류》—자본주의 제도를 쳐부시고 나갔는가에 대하여서는 해답을 주지 못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작품을 비롯한 초기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일반적인 제약성이였다.

작가 리 기영은 1928년에 이르러 단편 소설 《원보》를 통하여 바로 이 사상—예술적 과제를 해결하였고 그리함으로써 조선 프로레타리아 문학을 한 걸음 전진케 함에 있어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단편 《원보》에서 강조된 기본 사상,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주인공 석봉이와 원보의 형상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로농 동맹의 혁명적 사상이다. 석봉이와 같이 파업에 일떠선 로동 계급과 그의 지도 하에 원보와 같이 계급적으로 각성한 농민들이 굳게 뭉쳐 싸워 나감으로써만 수천년을 두고 사람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새 사회의 려명이 다가 올 수 있다는 신념을 바로 작가는 강조하며 하였다.

그러나 원보의 사상적 내용은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작품이 무엇보다도 비극적인 운명을 마친 원보 로인, 뜻하지 않게 서울에 와서 쓸쓸한 공동 묘지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농민 원보의 그 기막힌 사연을 줄거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단편 《원보》는 새 사회에로 나아갈 보람찬 길을 펼쳐 준 화폭일 뿐만 아니라 낡은 사회의 시궁창을 들춰 내고 그처럼 소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간 그 죄악 상, 부패 상에 대한 증오에 찬 론죄'장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배경은 서울이다.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도가니인 서울! 놀고 먹는 자, 돈 있는 자에게는 천당이고 가난한 사람, 선량한 뭇사람에게는 죽음의 생지옥인 서울! 바로 이 요사한 서울의 얼굴이 묘사의 대상으로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작가의 치솟는 분격과 폭로 정신이 우리 가슴을 울려 준다. 작가가 이 작품에 《서울》이라는 부제를 붙인 것을 어찌 우연하다 할 것인가?!

주인공 원보는 그야말로 《징글징글한 가난뱅이》로 늙어 온 농민이며 오늘은 부러진 다리를 움켜 쥐고 서울 한복판에 있지마는 자기를 학대하며, 자기의 피를 빨아 살찐 돈 많은 권세자에 대하여는 조금도 자각하지 못 한 인간이였다. 차비 40 전이 없어 80 리나 되는 딸네 집에 한 번도 차를 타고 가 보지 못 한 처지에 오늘은 비록 다리는 부러졌을망정 서울 구경을 하니 차라리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그였다.

원보는 생각한다. 농사'군들이야 이런 불상사(자기의 다리 부상)가 없었던들 어찌 기차를 타 볼 수 있을 것인가? 보라! 석봉이도 ×× 탄광 동맹 파업인가 무엇인가 하는 큰'일이 있었으니 기차에 타 보고 서울에도 올라올 수 있지 않았는가…

일제와 계급적 원쑤들에 의하여 강요된 원보의 비참한 처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서글프고도 우매한 원보의 형상 자체가 벌써 낡은 사회가 저질러 놓은 죄악 상의 폭로이다.

그러나 원보는 비록 세상 물정에 어두워 석봉이의 놀라움까지 자아내는 위인이였을망정 결코 뼈 없는 사람은 아니였다. 거칠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로 주섬주섬 말하는 원보 농민의 심정에도 2 중, 3 중의 착취와 가난 때문에 뼈'속에까지 사무친 원한이 있었다.

《에라 이 문둥아! 울기는 왜 우노? 늬나 내나 인자 죽어서 원통할 게 뭐란 말가? 늬 모르겠나? 내사 일곱 살 적부터 지게 지고 이 날 이 때까지 살아 왔지만도 늬나 내나 무슨 씨원한 일이 있었능고? —그래 늬도 죽고프다 말하지 않았능가? 귀신은 다 뭘 묵고 사노? 와 날 같은 년 안 잡아 묵노! 하지 않았능가? …》

원보는 마누라를 상대해서 마치도 죽음을 초월이나 한 것처럼 뻐젓이 말하는 것이였으나 이 말 속에는, 죽도록 일해 왔으나 가난으로부터 헤여날 수 없었던 자기 일생에 대한 눈물겨운 한숨과 저주가 스며 있다. 참으로 세상은 60 평생을 근면하게 산 그들을 너무나 학대하고 멸시하고 착취하였었다. 그들에게 한 쪼박의 기쁨, 한 가닥의 삶의 보람인들 던져 준 일이 있었던가! 없었다!

어찌 그 뿐인가. 부역 때문에 병신이 되여 불원천리하고 찾아 온 그들을 서울은 과연 어떻게 《대접》 하였던가? 그들에게 차례진 것은 차디찬 랭대, 쫓김, 굶주림, 공동 묘지에로의 길 뿐이였다. 서울이야말로 원보 부부에게 있어 도무지 가라사대를 가릴 수 없는 괴물이요, 희비극을 빚게 하는 야바우판이기도 하였다.

이런 우직한 농민 부부를 앞에 두고 자각된 로동자인 석봉이는 세상 리치를 하나 하나 깨쳐 준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천하게 보고 가난한 사람을 짐승 같이 천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망할 세상이올시다. 이 망할 세상을 누구나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요, 또 만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오직 로동자와 농민 같은 그런 절실한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뭉쳐 가지고 지배 계급과 투쟁할 것이외다! 지주와 자본가를 청산해야 될 것이외다! 당신네는 지금까지 우마와 같이 온순하게 일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원보는 뼈저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 속에서 몽롱하게 짐작된 생각을 이야기하기 곤난한듯 《저—저—》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다. 그는 인생의 보람을 찾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겠는가를 어슴프레하게나마 깨

닫게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러진 다리를 끌고 서울 교외 어느 다리 밑에서 죽어 갈 망정 그는 이제 와서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며 보람 있는 삶을 위해 얼마나 투쟁하고 싶었던가?

《보소, 내사 다시 살 수 없능겨 갈소. 그러나 내 인자 죽어도 괜찮소. 당신은 내 죽은 뒤라도 우리 농군들한테 가서… 그런 소리나 일러 주소! 우선 내 외손주한테 잘 일러 주소. 아, 내 소원은 그밖에 없지요…》 원보가 바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바로 원보 자신은 석봉에게서 받은 뜻을 실천하지 못 하고 떠나나마 로동자들만이 농군의 뜻을 잘 알아 주며 그들과 같이 손을 굳게 잡을 때만이 농군의 소원은 실현될 것이라는 자각을 의미한다.

원보는 바로 이 자각 때문에, 자기 계급의 래일의 운명에 대한 자각 때문에 죽음과 맞선 림박에 바로 처음으로 삶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통렬히 체험하였던 것이다.

원보의 운명, 그것은 비극적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자각된 인간의 죽음—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락관적이고 락천적인 비극이다. 원보는 자기 죽음을 슬픔으로 맞기는 했으되 그보다는 석봉이에게서 배운 그 진리가 농군들의 마음을 격동시킬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위해 싸워 나갈 보람찬 나날에 대해서 확신하게 됨으로써 바로 그의 죽음은 한낱 《슬픈 죽음》이 아니라 《락천적인 죽음》으로 되였던 것이다.

원보의 쓸쓸한 죽음을 알린 작가는 이 작품 맨 마감에서 묻고 있다.

《과연 서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작품의 흐름은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축도인 서울은 그 자체의 모순과 불합리로 하여 기필코 죄악의 소굴, 빈궁과 범죄의 마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어제'날 서울이나 오늘의 서울이나 다름이 없다. 다를 바 없을 뿐더러 미 제국주의자들이 둥지를 틀고 앉은 오늘의 서울이야말로 그 부패성, 범죄성에 있어 어제'날의 서울을 열 배, 스무 배로 능가한다.

도탄의 극에 이른 민생이나 뒤틀릴대로 뒤틀린 정치는 두 말할 것 없고 눈물과 분격이 없이는 들을 수조차 없는 비극, 참극의 속출, 조수처럼 밀려 드는 양키식 《생활 양식》으로 하여 고래의 미풍 량속은 간 데 없고 초보적 인륜조차도 여지 없이 짓밟혀 가는 오늘의 서울, 악이 선으로 뻐젓이 행세하고 부정의가 정의를, 허위가 진실을 떳떳이 대신하려 드는 말세기적 사회 풍조에 병든 오늘의 서울, 나아가서 남조선의 온 땅'덩어리는 말 그대로 악취 풍기는 시궁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해서 과언이 아니다.

여북하면 서방 기자들까지 그 곳을 가리켜 《지구 우에 돋아 난 가장 흉물스러운 종처》라고 상을 찌프렸겠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은 수천 수만의 《원보》—가난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기아와 질병의 함정에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가고 있다.

한때 연암 박 지원은 서울 종로 앞 거리에 꽉 들어 차서 《왁자지껄 오락 가락 발꿈치를 맞대고 궁둥이를 부비》면서 《농사를 방해하고 곡식을 손상시키는》 《황충》의 떼들을 풍자하면서 그것들을 잡아 치울만한 《큰 바가지》를 근심하였었다.

그러나 석봉이와 원보는 바로 생활이 가르키는 진리를 따라 자기 운명을 개척할 길을 찾았다. 원보는 악착한 제도의 희생물로 남았으나 수 많은 농민들은 바로 석봉이—로동 계급이 뿌린 혁명의 씨앗을 이어 받고 《놀고 먹는 서울 사람들》, 자본가, 지주들을 반대하여 싸워 왔으며 또 싸워 승리하였다.

우리는 오늘 슬기로운 조국 땅 일각인 서울과 온 남조선 천지가 무엇 때문에 그처럼 더럽혀졌으며 모든 화근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남의 나라 땅'덩어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명맥을 쥐고 터 없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미제 승냥이를 하루 바삐 몰아 내고 모든 애국적 량심을 단합한 남북 통일을 실현하는 길, 오직 이 길만이 《황충이 떼》를 없애는 길, 원보를 구원하는 길,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이 품어 온 념원을 실현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편 소설《원보》가 펼쳐 보이는 화폭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진리에까지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 그 만큼 이 작품은 당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까지도 독자들의 가슴을 울려 주는 바 크다.

《원보》는 작가 리 기영의 예술적 재능을 빛내고 있다는 점으로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작품에는 커다란 투쟁적 화폭도 없으며 그렇다 하여 사회적인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눈에 띄우지 않는 정도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세부 묘사에다가 해방 전 그 당시를 치자면 어느 거리에서나 쉽사리 만날 수 있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운명을 아무런 무리 없이 다루어 나갔다.

작품의 어느 구석, 어느 대목에서나 야단스러운 과장이나 억지스러운 점은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실지 우리 생활의 그것처럼 진실하고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얼마나 크고 큰 진리를 가르키고 있으며 얼마나 뜨겁게 우리 가슴을 울려 주는가!

이것은 바로 리 기영의 사실주의적인 단편 소설가로서의 뛰여난 재능을 말해 준다.

어느 한 대목도 감히 빼치지 못할 정도로 째인 작품 구성의 솜씨도 놀랍고 마치 얼음판에 박 밀듯이 거침 없이 엮어 내려 간 문장의 흐름 역시 리 기영 고유의 재능이라 하겠다. 특히 흥미진진한 것은 얼마 간의 대화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성격을 그처럼 선명하게 부각케 하는 솜씨이다.

원보 부부가 주고 받는 야단스럽고 목 곧은 경상도 사투리의 대화는 그 단어 선택이나 어'법 상으로 뿐만 아니라 농민 고유의 순후하고 소박한 사고 방식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완벽한 예술적 세련을 과시한다고 생각한다.

단편 소설《원보》(일명 서울)는 사상적으로나 예술적 높이로 보아 해방 전 우리 문학이 쌓아 올린 문학적 재보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한 자리를 차지한다.

청년생활 소사전

왜 파철을 쓰는 것이 유리한가?

대부분의 파철은 그 조성이 강철과 같다. 때문에 선철이나 텁철과는 달리 탄소, 규소, 린, 류황 등 불순물의 함유량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파철을 쓰면 제강 행정은 훨씬 쉬워지며 전기와 연료 소비량을 낮추고 제강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철은 강철 생산의 좋은 원료로 된다.

즉 제강 원료로 사용하는 선철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캐는 것으로부터 운반, 용해 등 수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파철을 리용하면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명년에 우리가 강철 생산에서 당이 제기한 대로 50만여 톤의 파철을 사용하면 황해 제철소에서 100만여 톤의 철광석과 약 80여만 톤의 수입 콕스 원탄을 소비하여 1년 동안에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량의 선철을 더 얻어 내는 것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파철 수집 사업을 위한 전 인민적 운동에 모두가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수기



룸펜의 설움

실업 청년 (남조선)
박 경철

참 창피한 일이다. 이제 와서 실업자라는 락인을 질머지고 내가 마치 실업자의 대표 선수이기나 한 것처럼 잡지에 수기를 싣는다니 실로 기가 차고 맥이 빠질 일이 아닐 수 없구나.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을 이 글의 원고료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도 나는 나의 고백을 여기에 털어 놓아야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실업자를 리해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도 나는 써야겠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 ×

나는 경북 상주에서 태여났다. 연초 경작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났다. 그리곤 국민 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 학교 3 년 그리고 대학을 4 년 동안; 합계 16 년 간의 교육을 받았다. 그만하면 어데 갖다 놓아도 인테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군대에 뽑혀 나갔다가 내 나이 27 세되던 해에 나는 군대에서 제대되여 비로소 사회에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제대된 첫 달은 그래도 일루의 희망이 있어서 괜찮았다. 고향에서 보내 온 돈이 호주머니 속에 있었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우월감이 나에게 있었고, 군대 생활 3 년에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여 든 만용이 이내 가슴 속에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달이 지나 갔다. 그래도 내 가슴 속의 청운의 뜻은 허물어질 리가 없었다. 좋은 일'자리가 일조 일석에 내 앞에 마련된다는 건 너무 싱겁고 허황한 일입을 깨우치고 있는듯한 착각 속에서 나는 생활을 계속했다.

나는 매일 밤 하숙방에 앉아서 리력서를 썼다. 지금까지 내가 쓴 리력서를 모두 합한다면 아마 백 장 가까운 수'자가 될 것이라 짐작된다. 나는 이걸 가지고 초면부지의 국회 의원도 찾아 가보았고 동향 사람으로 출세한 어느 회사의 사장도 찾아가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사돈에 팔촌만 된다 해도 연줄과 연줄을 더듬어서 별의별 직장과 사람들을 찾아 가선 소위 《죄송스러운 부탁 말씀》을 되풀이하곤 습관처럼 리력서 한 장을 책상 우에 공손히 놓고 물러 나오군 하기를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인지 모른다.

그러나 리력서를 두고 온 자리에서는 백이면 백 군데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소식이 감감했다.

제대된지 어언 6 개월이 흘러 갔다.

나의 마음은 초조와 불안으로 차츰 안정을 잃어 가고 있음을 나는 어슴프레 느끼고 있었다.

나와 함께 대학을 졸업한 동창생 가운데는 혹 무슨 재간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군대에도 안 뽑히고 일'자리를 얻어 제법 택시까지 타고 거들먹거리는 부자'집 아들도 있었다.

이런 판국에 나의 초졸구레하고 무기력하고 재간머리 없는 꼬락서니를 거울 속에서나마 맛보게 되면 나는 거울 속의 또 하나의 나를 콱 때려 눕혀 마구 밟아 주고 싶은 일종의 살의까지를 느끼군 하는 것이다.

이 때부터 나의 머리에는 사회에 대한 불신과 인생에 대한 염'증이 움트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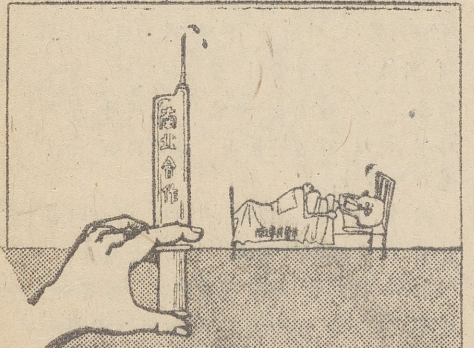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인테리를 자처하는 실직자다. 세상에는 식자 우환이란 말이 있다. 내가 차라리 교육도 뭣도 받지 못 하고 어느 두메'골에서 자란 순박한 농촌의 젊은이였다면 이런 취직의 고통을 맛보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허리를 굽신거리며 장편 소설 쓰듯이 리력서를 쓸 필요도 없을 것이 아닌가.

물론 농촌의 일도 육체적으로 고되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견주어 본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는 《지게》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 처지가 식자 우환이라는 립장에 있고 보니 그 말라 빠진 체면이나 자존심이라는 거치장스러운 허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마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어디 요긴한 직장에나 출근하는 사람처럼 일찌감치 옷을 떨쳐 입고 밖으로 나왔다. 뻐스란 원래 탈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타 놓으면 그 순간이나마 나는 무슨 사업이나 하는 사람처럼 바빠지고 열중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노릇이다.

허나 16 년 간 나를 공부시켜 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나는 등'골에 당장 소름이 끼치고 이 못 된 사회를 내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받는다.

(잡지 《시대》에서)



이 주사질 이외에는 구활 길이 없다



말이야 못하겠나?



탐욕스러운 악어는
예대로 가증스런 독아를
갈고 있다.
우리 힘 모두 합쳐
원쑤의 흉계를
무찌르자.

이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조국 해방을 위해 바친 비르마 인민의 사랑하는 시인 탄긴 코드가 읊은 시의 한 구절이다.

비르마는 서부에서 인도, 파키스탄, 북동에서 중국, 동부에서 라오스, 타이 등과 접경하고 남부는 벵갈만 및 안다만해에 면하고 있다. 이 나라의 면적은 47만 7,950 평방 키로 메터로서 인도지나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다. 비르마 련방 혁명 정부의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는 2,300만을 넘는다.

비르마는 다민족 국가로서 주민의 4 분의 3이 비르마 족이고 그 밖에 카렌 족(9%), 샨 족(7%) 기타 많은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소수 민족들은 비르마 련방 내에서 민족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래 동안 조장된 민족 리간 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들 간의 대립과 알륵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르마의 종교로서는 불교가 지배적이고 주민의 80%가 불교도이다. 이 나라에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절간들과 불탑을 볼 수 있다. 특히 수도 랑군의 《대금탑》이 유명하며 만달레이에는 천 개의 불탑이 있다는 《천탑사》가 있다.

17 세기부터 인도양 일대에서 식민지 략탈을 개시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885년에 비르마 왕국을 전복하고 비르마를 대영 황제가 통치하는 영령 인도의 한 개 주로 편입시켜 식민지로 통치하여 왔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된 첫 날부터 비르마 인민들은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1920 년대 이후 비르마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 앙양되였고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1939년 8월에 비르마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은 어려운 지하 활동을 하면서 빨찌산 부대를 조직하여 외래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 비르마를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비르마 인민을 노예화하려고 광분하였다. 그러나 비르마 인민들은 비르마 공산당의 지도 하에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패망한 후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한 영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피묻은 침략 군대를 비르마에 끌어 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르마 인민들은 영국 침략군의 철거와 민족 정부 수립, 민주주의적 헌법의 작성 등을 요구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1947년 11월 알칸에서 일어 난 대규모적인 폭동과 뒤이여 일어 난 로동자들의 대파업, 농민 봉기 등을 비롯하여 비르마 인민들의 반제 투쟁은 전국을 휩쓸었다.

이렇듯 장기간에 걸치는 비르마 인민들의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1948년 1월에 드디여 비르마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현재 정권은 비르마 련방 혁명 위원회가 장악(1962, 3)하고 있으며 네 윈이 대통령 직권과 수상을 담당하고 있다.

독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르마 정부는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중립과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비롯하여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비르마 련방 정부는 비르마의 평화와 중립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경제적 압력과 회유 정책, 비르마 정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분렬 책동, 장 개석 도당과 타이 반동들을 사촉하여 국경 지대에서 일으키고 있는 빈번한 도발 행동 등을 견결히 반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비르마 간에 다년 간 문제로 되여 있던 국경 문제는 두 나라 간에 평화적인 회담의 방법에 의하여 1960년 10월에 최종적으로 해결되였으며 1961년 1월에는 중국 비르마 량국 간에 《우호 및 호상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였다. 이는 중국과 비르마 사이에 반목과 리간을 조성하려고 책동하던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또 하나의 타격으로 되는 것이였다.

최근 년간 조선인민들과 비르마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 관계는 날로 두터워 가고 있다. 우리 나라와 비르마 량국 간에는 이미 1957년부터 통상 관계가 설정되고 있으며 1961년에는 총령사 교환에 관한 합의가 달성되여 지금 비르마의 수도 랑군에서는 우리 나라의 령사관이 사업하고 있다. 또한 랑군에는 비르마—조선 친선 협회가 창립되여 활동하고 있다.

비르마 인민들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의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독립을 달성한 후 비르마 련방 정부는 경제, 정치 분야에서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며 나라의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즉 외국 자본에 속해 있던 철도, 통신 수단, 중요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민족 사자본에 속하는 은행과 《비르마 석유 회사》등을 《국유화》하였으며 새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다.

비르마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비르마의 농업은 벼 재배로 전문화되여 있는바 벼의 재배 면적이 총 파종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제 2 차 세계 대전 시기에 비르마는 년 평균 약 8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그 중 300만 톤 내외를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제 1 가는 쌀 수출국이였다. 벼 이외에 고무, 사탕수수, 면화, 차 그리고 깨, 락화생, 콩 등의 유지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근년에는 황마, 담배 등의 새로운 공예 작물도 재배되고 있다.

비르마 공업의 대표적인 부문은 수출을 위한 광물의 채굴과 농산물의 초보적인 가공이다. 채광업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원유의 채취이다. 2차 대전 전의 원유 생산량은 매년 100만 톤에 달하여 쌀 다음 가는 수출품이였다. 이 밖에도 중석과 주석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정미 공업과 제재 공업이 발전되고 있다.

비르마의 중요 수출품은 쌀이며 수출 총액의 70~80%를 차지한다. 그 밖에 원유, 유색 금속광, 치크재, 면화, 고무 등이 수출되며 중요 수입품은 직물, 기계 및 설비품, 흑색 금속, 비료 등 공업 제품이다.

비르마의 대외 무역에서 최근 년간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무역 비중이 점차 높아 가고 있다.

비르마와 우리 나라 사이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기계 및 설비품, 화학 제품, 경공업 제품 등 공업품을 수출하며 비르마로부터는 농산품, 생고무 기타 공업 원료를 수입한다.

오늘 비르마 인민들은 자립 경제를 건설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하게 싸우고 있다.

누가 검고, 누가 희냐?

(비르마) 마오 인뒤

《자유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자유롭다》고
미 제국주의자들 렵치 좋게 떠벌린다.
자유롭다고?
누가 그걸 믿느냐!
자유의 신은 왜 눈물 흘리느냐?!

케네디는 목청 돋구어 떠들어 댄다.
《미국에선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인종 차별도 없다》고
도깨비 소리!
그 소릴 누가 듣는 줄 아느냐?
보라,
300여 년의 압박의 력사를 보라!
흑인이 얼마나 모욕과 시달림 받았는가?
어떻게 인종 차별이 벌어졌는가?
《인권 선언》도 여지 없이 짓밟혔거늘…

저기를 보라!
흑인 형제들이 함께 일떠섰도다.
자유
　　평등
　　　　인권을 위하여!
경찰의 곤봉, 세파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더욱 굳세게 투지를 다지누나.
들으라!
피끓는 싸움의 노래,
우렁찬 싸움의 노래
—《우리는 자유 위해 싸운다.》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소방대의 펌프도
투쟁의 불'길은 끄지 못 한다.

흑인의 마음과
백인 자본가의 마음은
누가 검고, 누가 희냐?

제국주의와 착취자는
인류의 철천지 원수,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
흑인 형제여,
우리는 끝까지 그대들의 편
세계의 모든 인민들
　　백인,
　　흑인,
　　황색인,
모두 손에 손잡고
굳게 단결하여 나아가자.
손에 손에
무기를 튼튼히 잡고
우리의 원수 미제를 타도하자!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동 전화 (38-58, 83-85)
1963년 12월 16일 인쇄 1963년 12월 21일 발행
(값 35 전) ㄱ-330758


분 배